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張漢喆 『漂海錄』의 多聲性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진 선 희

2011년 2월

張漢喆 『漂海錄』의 多聲性 연구

지도교수 김 병 택

진 선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진선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2월

Polyphony of Jang Han-cheol's Pyohaerok

Jin Seon-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yung-tae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1.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Byung-taek,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과 범위	3
3. 연구사 검토	6
II. 『표해록』의 문학적 성격	10
III. 『표해록』의 다성성	17
1. 시간·공간의 구조	19
1) 시간의 순차적 구조	21
2) 공간의 병치적 구조	30
2. 주체의 연술 유형	37
1) ‘나’의 내포적 연술	39
2) ‘나’의 외연적 연술	43
3. 주체의 행동 방법	47
1) ‘나’의 현실중심적 행동	48
2) ‘나’의 과거중심적 행동	50
IV. 『표해록』의 문학적 가치	54
V. 결론	57
참고문헌	59
Abstract	61

I. 서론

1. 연구 목적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표류는 일상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항해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옛 문헌 중에는 표류 경험을 담아낸 ‘표해록’이 적지 않다. 바다 밖에서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낯선 세상에 던져진 표류인들이 경험한 여러 문물과 풍습을 적어놓은 ‘표해록’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일찍이 해양문학의 역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왔다.

‘표해록’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표류로 죽음에 이른 인원은 문헌으로 전해진 숫자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기록으로 미처 남기지 못한 표류 경험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바다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의 표류는 다반사였다.

장한철(張漢喆 1744~?)¹⁾의 『표해록(漂海錄)』²⁾은 제주 사람 장한철이 조선 영조때인 1771년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일행 29명과 함께 제주를 떠나 물으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 일본 유구 열도, 전남 청산도 등을 12일간 떠돌다 귀환한 경험을 기록해 놓은 자료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중인 『표해록』 필사본은 2008년 12월 제주도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표해록』과 관련 “학계에 보고된 것 가운데 가장 문학성이 높은 해양문학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³⁾면서 지방문화재 지정 배경과 함께 그것이 지닌 문헌적 가치를 밝혔다.

제주를 출발해 일본 유구열도의 호산도에 가까스로 도착했지만 왜구의 습격을 받고, 안남 상선에 구조된 이후에는 안남세자 피살설로 다시 쫓겨난 뒤 전남 청산도 근해에서 조난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표해록』의 줄거리는 지어낸 이야기보다 한층 흥미진진하게 진행된다. 게다가 여느 ‘표해록’에서 접하기 어려운 여인과의 로맨스도 나온다. 장한철 일행의 마지막 표착지였던 청산도에서 지은이와 하룻밤을 보내는 여인의 등장은 『표해록』을 당대의 인기 있는 저

1) 지금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출신인 장한철은 1775년(영조 51년) 32세의 나이로 문과 별시 병과에 급제했다. 급제한 뒤에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이조의 가낭청(假郎廳), 강원도 흡곡(歙谷)현령, 제주도 대정현감 등을 지냈다. 장한철, 김지홍 옮김, 『표해록』, 지식음만드는지식클래식, 2009, 14~19쪽. 본고는 장한철의 한자어 이름을 국립제주박물관 필사본에 따라 張漢喆로 쓴다.

2) 본고에서는 정병욱이 옮긴 『표해록』(범우사, 2006)을 텍스트로 삼았다. 1959년 8월 제주도 학술조사에 참가해 장한철 『표해록』을 발견했다는 정병욱은 이 작품을 국내에 처음 번역해 소개했다. 정병욱 번역본의 토대가 된 필사본은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이후 현해당이 옮긴 『그리운 청산도』(2006), 김지홍이 옮긴 『표해록』(2009)이 나왔다. 이하 본고에서 『표해록』은 장한철의 표해록을 지칭하는 것이고, ‘표해록’은 표류 경험을 담은 일체의 기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3) 제주도·제주문화에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2009, 258쪽.

작물로 만든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해록』을 번역한 정병욱은 이에 더해 장한철 『표해록』이 해양지리서와 설화집으로서 문헌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해양지리서는 장한철 일행이 경과한 경로를 더듬으면 해로와 수류(水流), 계절풍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설화집은 『표해록』 곳곳에 제주도에 남아있는 전설이 풍부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그 가치를 매겼다.⁴⁾

『그리운 청산도』라는 이름으로 장한철 『표해록』을 번역 출간한 현해당도 이 작품에 대해 “장한철의 「표해록」은 조선 성종때 최부의 「금남선생표해록」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문학을 대표하는 수작”이라며 “실화(實話)임에도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저자의 탁월한 솜씨는 마치 한 편의 훌륭한 소설을 읽는 듯 하고, 그에 덧붙여 천문, 지리, 역사, 신화 등에 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⁵⁾고 평했다.

최근 장한철 『표해록』을 비롯해 표류에 얽힌 해양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작품에 대한 문학적 분석보다는 박동욱의 글처럼 표해록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 접촉을 읽으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漂流는 예기치 않은 운명의 기록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식 사행인 燕行使나 通信使와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표류는 연행사와 통신사와는 다른 非公式的인 集團이며 無計劃的인 一連의 사건을 겪게 마련이다. 오히려 두 공식적인 기록보다는 역동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다양한 시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기록은 두 나라의 문화가 접촉되는 衝擊과 驚異를 담고 있어서 양국 상호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간과한 장면들이 이방인의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⁶⁾

정민 역시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에서 “대만이나 유구, 안남 등지의 낯선 풍속과 일본인들의 생활상 등 표류인들의 다양한 해외 체험은 당시 독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바다밖에 자신들이 생각지 못할 만큼 드넓은 또 다른 세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스스로를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답답하게 여기는 인식들이 싹텄다”⁷⁾면서 표해록이 당대의 문화교류와 세계에 대한 인식 확대에 기여한 점을 주목했다.

이처럼 표해록의 의미에 주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주로 문화교류적 시각에 치우친 점이 있었다. 문화교류적 접근은 비공식적인 기록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며 표해록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4) 장한철 지음, 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2006, 15~16쪽.

5) 장한철 외, 현해당 옮김, 『그리운 청산도』, 한국학술정보, 2006, 6쪽.

6) 박동욱, 「崔斗燦의 乘槎錄에 나타난 한중 지식인의 상호인식」, 『표류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09, 1쪽.

7) 정운경, 정민 옮김, 『탐라문견록, 바다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33쪽.

한편에 표해록이 지닌 문학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는 측면을 지닌다. 해양문학인 표해록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흥미를 끄는 모험담이라는 일차적 평가를 넘어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 같은 이유로 표해록에 대한 새로운 분석 도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박동욱도 지적했듯, 표해록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역동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다양한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측불허의 상황,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채 결말을 알 수 없는 표류의 노정은 표해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사전에 잘 짜인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만든다.

이 같은 표해록의 특징은 ‘하나 이상의 다양한 의식이나 목소리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문학’⁸⁾으로 정의되는 바흐친의 다성적 문학과 그 흐름이 닿아 있다. 1인칭으로 서술되는 표해록의 작가는 작품 속 다양한 인물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이 없는 표류를 함께 겪은 사람들의 면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낼 뿐이다. 표류와 맞닥뜨려 여러 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헤쳐 가는가를 서술하는 동안 반대되는 목소리와 관념들이 저절로 한 텍스트 안에 어울리게 된다.

본고에서는 바흐친의 다성성 담론을 끌어와 장한철의 『표해록』을 고찰함으로써 표해록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산문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그만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성성 담론을 통해 『표해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좀 더 면밀히 고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바흐친의 다성성 이론은 최근 한국의 현대문학을 분석하는 도구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⁹⁾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면모를 세밀한 심리묘사를 더해 그려내고 있는 장한철의 『표해록』역시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과 더불어 다양한 울림을 지닌 목소리를 등장시키는 등 다성적 소설의 특징을 지녔다. 이 같은 『표해록』의 성격을 다성성이라는 그물망으로 읽어낼 경우 작품이 품고 있는 새로운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8)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4, 163쪽.

9) 바흐친 이론이 국내에 집중적으로 소개된 해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다. 바흐친 이론이 번역 소개되는 동안 제도권 대학 안에서 바흐친을 문학에 수용하려는 노력이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그런 중에도 1990년 「김유정 소설의 카니발적 구조 연구」라는 석사논문이 나왔고, 춘향전에 바흐친의 카니발 개념을 적용시킨 석사논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바흐친의 문학/이론은 바흐친의 소설론, 소설적 담론, 크로노토프, 카니발, 대화, 페미니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수용됐다. 이득재, 『바흐친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3, 220~224쪽.

애초부터 바흐친은 다성성을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다.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문제들’ 제1장에서 다성성에 대한 상당량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에 대한 명쾌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는다.¹⁰⁾ 이는 한편으로 다성성이 그만큼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흐친에 따르면 다성성¹¹⁾은 작품의 어느 한 요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요소에 다 적용된다. 예컨대 작중 인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면 작품의 플롯과 구성, 주제나 이데올로기와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다성성은 작품의 언어와 스타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²⁾

바흐친의 다성적 소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독립적이며 융합되지 않는 다수의 의식과 목소리를 가진 작중인물,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적 긴장을 유지하게 하는 개방적 구조이다.¹³⁾ 『표해록』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되는 1인칭 시점의 작품이지만 표류의 여정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위기를 헤쳐 가는 각각의 인물들의 현실인식과 대응방법을 알 수 있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목소리 사이로 여러 인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본고에서는 바흐친의 다성성 이론을 바탕으로 장한철 『표해록』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고자 한다. 하지만 『표해록』을 다성적 문학으로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다만 『표해록』에서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 주인공의 내포적 언술과 외형적 언술이 양가적 위치에 놓이면서 작품의 긴밀도를 높이는 등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다성적 특징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표해록』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문학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다성성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표해록』이 어느 표류 기록에 비해 극적 긴장감과 흥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문학사에는 장한철 『표해록』만이 아니라 여러 표해록 작품들이 있다. 윤치부¹⁴⁾는 표해류 문학이란 이름으로 기사류, 문헌설화류, 창작류, 가사류 등으로

10) 게리 솔 모슨·케텔 에머슨,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405쪽.

11)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문제들』에서 대화 이론의 핵심적 개념으로 다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바흐친이 밝히고 있듯이 음악의 용어를 빌려 왔다. 음악에서 다성성은 대위법에 의해 하나 이상의 독립된 멜로디가 화성적으로 결합된 음악 형태를 가리킨다. 다성성이란 용어는 비록 음악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렇다고 음악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바흐친의 지적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유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다성성과 대위법의 이미지는 오직 어느 한 소설이 흔히 독백적 통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구성될 때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점을 가리킬 뿐이다”라고 했다. 바흐친은 다성성이라는 용어를 문학 이론에 처음 도입한 이론가는 아니지만 다성성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문학이론에 적용한 사람이다. 김육동, 앞의 책, 160~161쪽.

12) 김육동, 앞의 책, 166쪽.

13) 정미진,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다성성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73쪽.

14) 윤치부, 『한국 해양문학 연구-표해류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표해록을 나누고 장한철 『표해록』 등 27편의 작품을 제시한 바 있다. 『옛 제주인의 표해록』¹⁵⁾만 해도 최부가 남긴 기록 등 제주 관련 표해록 9편을 번역해 실었다. 『탐라문견록, 바다밖의 넓은 세상』은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제주 르포’라는 부제를 달고 1731년 무렵 제주에 머물렀던 정운경이 남긴 인터뷰 자료를 발굴해 15편의 제주 관련 표류기를 번역해 놓은 책이다.

이중 최부의 기록과 더불어 널리 알려진 문헌이 장한철 『표해록』이다. 장한철 『표해록』은 분량이나 정보의 양에서는 최부의 표류 기록에 뒤지지만 서사의 질이나 담겨 있는 의식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부의 것을 넘어선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⁶⁾

흔히 장한철 『표해록』과 견주어 거론되는 최부의 작품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하멜의 『하멜표류기』와 더불어 3대 여행기로 꼽힌다. 하지만 장한철의 『표해록』에 비해 건조한 측면이 있다. 지은이의 박학다식함이 드러나고 당시 중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소개돼 독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지만 지나간 여정에서 만난 자연, 인물, 풍속 등이 백과사전처럼 나열되어 있는 양상으로 문학적 감흥은 덜하다.

이에 비해 장한철의 『표해록』은 곳곳의 극적 장치, 긴밀한 장면묘사로 독자의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적지 않은 ‘표해록’이 출항-표류-귀환의 구조 속에 그 여정을 재현해 놓는 것에 그치고 있다면 장한철 『표해록』은 한층 복잡한 줄거리 속에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심리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표해록』을 중심으로 다성성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이 작품에 나타난 소설적 기법, 구조 등이 흥미를 끌기 때문이다.

II장에서는 『표해록』을 대상으로 다성성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에 앞서 『표해록』이 지닌 문학적 성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문으로 쓰여진 『표해록』은 바다-배-항해가 주요 모티프로 전개되는 해양문학이면서, 낯선 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경험을 담은 기행문학이다. 그런가하면 그날 그날의 날짜에 맞춰 일기쓰듯 써나간 일기문학이자, 자신의 경험한 사실을 충실히 보고한 기록문학이다.

장한철의 작품을 비롯한 ‘표해록’은 느닷없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을 다룬 문학 작품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시공간으로 흘러가는 표류는 비결정성, 비중결성, 불확정성을 통해 존재보다는 생성,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다성성의 특징과 닿아 있다.

III장에서는 『표해록』에 나타난 다성성, 즉 시간과 공간의 구조, 주인공 ‘나’의 내포적 언술과 외형적 언술,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중심적 행동이 어떻게 작품 안에서 나란히 기능하며 다성적인 담화 구조를 빚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15) 장한철 외, 김봉옥·김지홍 옮김,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1.

16) 장시광, 「표해록의 문학적 위상」, 장한철 지음, 김지홍 옮김, 앞의 책, 2009, 196~197쪽.

한다.

첫째, 바흐친의 문학이론에 등장하는 크로노토프(시공성)와 연계된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를 통해 『표해록』속의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삶의 극한 체험을 희망의 메시지로 바꿔놓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섬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병치적 구조가 결국 표류의 운명을 안고 사는 제주사람들의 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표해록』에 나타난 주인공 ‘나’의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을 통해 작품에 담긴 다성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실제 주인공의 속마음과 대중들을 향한 발화가 충돌하는 작품 속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은 무수한 상징과 복선으로 이야기의 긴밀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벼랑 끝에 몰린 표류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결국 이 둘은 나란히 존치하며 『표해록』의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여겨진다.

셋째,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중심적 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해록』이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에 놓인 복잡다단한 내면을 표현하고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중심적 행동이 한 몸에 존재하며 여러 울림을 내는 이 같은 다성적 측면은 『표해록』의 문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사 검토

장한철의 『표해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정병욱이 옮긴 『표해록』을 통해서다. 정병욱은 앞서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펴낸 『인문과학』제6집(1961)을 통해 발굴 자료인 『표해록』의 원문과 해제를 수록한 바 있다. 이후 범우사에서 『표해록』이 번역 발간되면서 독자들과 한층 가깝게 만나게 됐다. 발굴 자료로 국내에 소개된 『표해록』은 해양문학 작품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해당 작품이 지닌 문학적 가치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장한철 『표해록』은 최근까지 몇 차례 단행본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정병욱 번역의 『표해록』은 1979년 초판 이래 2006년까지 2판 2쇄를 찍었다. 작품 해설과 함께 번역문을 실었는데, 모험담과 연애담을 함께 지닌 전형적인 중세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 해양지리서와 설화집 등 문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봉욱과 김지홍은 『옛 제주인의 표해록』중 한 편으로 장한철 『표해록』을 원문과 함께 담았다. 역자들은 표류기가 “표류 경위와 표류하여 도착한 곳의 사정

들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어, 당시 사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¹⁷⁾면서 성종 때 최부의 작품과 더불어 영조 때 장한철 『표해록』이 널리 알려져 있는 표류 관련 문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종헌은 현해당이란 필명으로 장한철 『표해록』 등을 번역해 원문과 함께 실은 『그리운 청산도』를 냈다. 이 책은 그동안 소개된 번역서가 국립제주박물관 필사본을 택해 우리말로 옮기거나 원문을 수록한 것과 달리 ‘심성재(尋性齋)’라는 당호(堂號)가 기록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전사본을 원전으로 삼았다. 지은이의 표류 여정에서 마지막 머물렀던 청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여긴 역자는 번역서 제목을 『그리운 청산도』로 붙였다.

역자에 따르면 두 필사본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책 표지에 심성재라는 당호가 기록된 국립도서관본에는 한유의 고문을 가려내 실은 「고문초(古文抄)」와 안동사림의 글을 묶은 「회현정(會賢亭)」도 추가로 실려 있다. 내용 또한 국립제주박물관본에 비해 새로 삽입하거나 고쳐 쓴 것이 많다. 역자는 책 표지에 심성재라는 당호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책의 전사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상고하기 어렵다¹⁸⁾고 했다. 또한 국립제주박물관 필사본과 비교해 지은이의 이름 중 철(詰)을 철(哲)¹⁹⁾로 쓰고 있는 점도 다르다.

소설가 한창훈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제주 선비 구사일생 표류기』를 발간했다. 그는 장한철의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표류기를 썼다. 작가는 재미있으면서도 눈물나는 표류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쉽게 읽고 바다를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하고 빼서 읽기 편하게 만들었다²⁰⁾고 밝혔다. 일기 형식으로 써나간 『표해록』의 기본 줄거리를 따르면서도 조선시대 사람들이 바다에서 겪은 모험담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풀어놓고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가 발간한 『옛 제주인의 표해록』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김지홍은 뒤이어 장한철의 『표해록』을 따로 냈다. 국립제주박물관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두주(頭註)의 내용까지 번역해 놓았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심성재 필사본 내용과 비교 대조 작업을 벌이며 관련 내용을 수록해 이후 『표해록』 연구에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홍의 번역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두주다. 두주는 지은이가 뒷날 직접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 주석으로 본문 위쪽에 초서로 쓰여 있다. 김지홍은 ‘뒷날 덧붙임’이라는 이름으로 각주로 이를 번역²¹⁾했다.

제주출신 재일동포인 송창빈이 일본어로 번역해 출간한 『漂海錄』²²⁾도 있다. 일

17) 장한철 외, 김봉욱·김지홍 옮김, 앞의 책, 1쪽.

18) 장한철 외, 현해당 옮김, 앞의 책, 5쪽.

19) 장한철 외, 현해당 옮김, 앞의 책, 91쪽.

20) 한창훈 글, 한주연 그림,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 한겨레 아이들, 2008, 2쪽.

21) 장한철, 김지홍 옮김, 앞의 책, 9쪽.

본 동경에 있는 출판사인 신간사에서 탐라총서 2권으로 나온 『漂海錄』은 ‘표해록 원본’이란 이름으로 필사본을 싣고 짙막한 해제도 달았다. 당초 일본의 탐라연구회 기관지인 『탐라연구통신』에 1985년 11월부터 13회에 걸쳐 일본어로 번역해 연재했던 것을 하나로 정리해놓은 책이다.

장한철 『표해록』을 전면적으로 다룬 논문은 드문 편이다. 오관석의 「한문기행 연구-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는 장한철 『표해록』이 다양한 인문학적 자료와 함께 인간·자연·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사실적·역동적으로 서술하였고, 짜임새 있는 연애담을 삽입해 로맨스 문학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등 수준 높은 문학성을 구현했다²³⁾고 분석했다.

서인석은 「장한철의 『표해록』과 수필의 서사적 성격」에서 장한철 『표해록』을 서사적 요소를 갖춘 수필로 보고 서사문학적 접근을 통한 문학적 성격을 검토했다. 그는 1인칭 서술이 갖는 수필 일반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서사문학의 대표격인 소설에 비해 개인의식 표출이 더 잘되었다는 점, 1인칭 주관에 의해 여과된 서술이지만 사실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잃지 않고 체험의 현실성에 따른 문학적 형상화가 뛰어나다²⁴⁾는 점을 『표해록』의 특징으로 들었다.

윤치부는 「한국 해양문학 연구-표해류 작품을 중심으로」를 썼다. 이 글은 해양문학적 관점에서 ‘표해록’을 살폈는데, 그중 작자 소개, 작품의 구조, 주요 내용, 표현 형식상의 특징에 걸쳐 장한철 『표해록』을 다뤘다. 윤치부는 장한철 『표해록』의 이본이 많은 것은 저작물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²⁵⁾이라고 밝혔다.

윤일수는 「『만강홍』에 나타난 장한철 표류담의 계승과 변이Ⅰ」, 「『만강홍』에 나타난 장한철 표류담의 계승과 변이Ⅱ」를 통해 표류담과 연애담의 병렬로 구성된 두 작품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면서 “두 작품 간에는 이러한 유사성 이외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보인다. 이것은 장한철 표류담은 사실의 기록인데 비해 『만강홍』은 허구를 가미한 창작물이라는 장르상의 차, 두 작품이 형성되는 시기상의 상이성, 작가 이식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²⁶⁾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960년대 초반 발굴 자료로 학계에 소개된 『표해록』은 출항에서 귀환까지 고난의 기록을 담은 표류기의 전형을 따르면서도 극적인 이야기를 갖춘 문학 작품의 하나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해록』을 발굴 소개한 정병욱 이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필사본

22) 張漢喆, 宋昌彬 譯, 『漂海錄』, 新幹社, 1990.

23) 오관석, 「한문기행 연구-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67~68쪽.

24) 서인석, 「장한철의 『표해록』과 수필의 서사적 성격」,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9, 159쪽.

25) 장한철의 『표해록』은 최부의 ‘표해록’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이본을 갖고 있는 ‘표해록’으로 꼽힌다. 『靑邱野談』에 실린 ‘赴南省張生漂大洋’과 『東野彙輯』에 수록된 ‘漂萬里十人全還’은 이야기체의 작품으로 특히 후자는 청산도 여인 조씨녀를 소실로 삼았다고 기록했다. 이는 장한철 『표해록』이 조선 후기 이야기꾼들에게 중요한 이야깃거리였음을 추측하게 만든다. 윤치부, 앞의 글 131쪽.

26) 윤일수, 「『만강홍』에 나타난 장한철 표류담의 계승과 변이Ⅱ」, 『어문학』 제58집, 한국어문학회, 1996, 436쪽. 『만강홍』은 1910년대 황산이 쓴 창작 희곡이다.

등 『표해록』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번역 작업도 꾸준했다. 한편으로는 『표해록』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거나 재일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일본에 번역되는 등 흥미로운 문학작품으로 이목을 끌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한문기행적 측면에서 『표해록』이 지닌 문학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반면 그동안 이루어진 『표해록』에 관한 논의는 ‘해양문학의 백미’라는 선언적 평가에 머물거나 문학적 가치를 언급하되 모험담, 로맨스에 한정지은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표해록』의 가치를 알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가 지닌 문학적 성취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립박물관 소장 필사본을 토대로 『표해록』 번역서가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표해록』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작품이 내포한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해록』이 드러내고 있는 해양문학·기행문학·기록문학·일기문학적 성격과 아울러 다성성을 통해 작품이 지닌 문학적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표해록』의 문학적 성격

『표해록』은 표류 경험을 담은 여느 ‘표해록’처럼 목적지를 향한 출항-항해-표류-귀환의 여정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표해록’과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 많다. 험난했던 여정을 단순히 재현해 놓는 데서 벗어나 꿈, 설화, 연애담 등 지루하지 않은 이야깃거리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현대소설에 못지않은 복선²⁷⁾이 드러나는 등 치밀한 구성으로 잘 짜여진 문학 작품 한편을 읽는 느낌을 준다.

『표해록』의 해양문학적 성격은 바다를 헤쳐 가며 바다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면모를 헤아릴 수 있다. 『표해록』은 또한 새로운 세계의 문물과 풍속을 소상하게 전달하며 작자의 감흥이 표출되는 기행문학적 성격을 지녔다. 아울러 기록문학적 성격 한편에 일기문학적 성격이 자리하고 있다. 거친 바다를 뚫고 살아남은 표류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기록문학적 성격을 가진 『표해록』은 사적인 체험을 진솔하게 담은 일기문학적 셈이다.

『표해록』은 크게 네 가지의 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의 첫째는 해양문학적 성격이다. 『표해록』은 일찌감치 해양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혀왔다. 정병욱은 『표해록』 번역서에서 “국문학사상 일찍이 독립된 장르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해양문학의 한 작품을 소개한다”²⁸⁾며 감격어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장한철 『표해록』을 포함한 여러 ‘표해록’의 해양문학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던 윤치부는 “해양문학은 바다를 주요한 소재로 하는 중요한 문학 양식”이라며 “바다를 소재로 하는 국문학 작품 가운데 표해류 작품은 가장 대표적인 해양문학 작품”²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표류로 인한 특수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밖에 없었는데 바로 실제 작품들이 문헌설화로서 전해지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국문학 작품의 통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는데 일기형식의 한문수필에서 점차 소설적 요소들로의 변화가 그것”³⁰⁾이라고 밝혔다.

해양문학에 대한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윤치부는 해양문학에 대한 협의·광의의 개념을 포괄해 바다를 주제로 한 문학, 바다를 주요 대상과

27) 최근에 『표해록』을 번역한 김지홍은 역자의 말에서 “만일 이것이 순수창작이라면, ‘복선’을 깔아놓은 기법이 새삼 현대소설에 못지않다고 느낀다. 이는 복선이 우연성 남발에 대한 반발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깊이 반성한 결과로서도 나왔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고 했다. 장한철, 김지홍 옮김, 앞의 책, 13쪽.

28) 장한철, 정병욱 옮김, 앞의 책, 7쪽.

29) 윤치부, 앞의 글, 148쪽.

30) 윤치부, 앞의 글, 148쪽.

배경으로 하는 문학, 바다에서 직접 취재한 문학, 바다 그 자체의 자연미가 대상이 되는 문학, 인간이 바다에 대한 동경이나 모험적 본능이 나타나는 작품³¹⁾으로 해양문학을 정의했다.

해양문학에 관한 학문적 수준의 외연과 내포가 규명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구모룡은 바다-배-항해의 주요 모티프를 지니는 해양문학은 순전히 근대적 문학 양식이라고 보았다. 근대적 문물이 도입되는 항구도시, 바다위의 상선과 어선, 군함 같은 근대적 표상들이 있는 풍경이 드러나는 게 해양문학³²⁾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표해록』을 비롯한 여러 표해록 작품은 이미 해양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가 펴낸 『국어문학사전』은 본격적인 기록물인 표해록은 해양문학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히 평가된다³³⁾고 했다. 허웅·박지홍도 장한철 『표해록』이 국문학사에서 유일한 해양문학 작품으로 중편 구소설에 해당한다³⁴⁾고 보았다. 특히 장덕순은 표해록 작품을 해양문학의 백미³⁵⁾라고 표현했다.

구모룡은 해양소설을 두고 서사문법이 단조롭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공간인 배에서 동일한 유형의 노동과 유사한 패턴의 삶을 영위하는 선원을 서술 주체로 삼는 해양소설에서 풍부한 서술 양상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³⁶⁾라는 것이다.

항해-표류-귀환이라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옛 ‘표해록’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바다에 떠밀리게 된 작중인물들의 사연, 표류에 대처하는 주인공의 자세, 표착지에서 만나는 해당 지역의 진귀한 풍물 등이 작품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여정을 되짚어내며 주로 건문을 담아내는 ‘표해록’에서는 건조한 서술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

무사귀환을 예고하는 꿈 장면처럼 허구적 장치가 가미된 듯한 장한철 『표해록』은 이같은 지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제주에서 호산도, 청산도로 이어지는 동안 매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이 그려지는 『표해록』은 그것들과 차이를 보인다. 『표해록』에 대한 문학적 고찰에서 해양문학적 성격을 뛰어넘어 새로운 읽기가 필요한 이유다.

둘째는 기행문학적 성격이다. 표류는 바다에 나선 이들이 예고도 없이 낯선 세상으로 던져지는 사건이다. 표류 경험을 담은 『표해록』에는 표착지의 풍속과 건

31) 윤치부, 앞의 글, 5쪽.

32) 구모룡, 『해양문학이란 무엇인가』, 전망, 2004, 39~41쪽.

33) 서울대학교동아문화연구소 편,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1, 655쪽., 윤치부, 앞의 글, 5쪽에서 재인용.

34) 허웅·박지홍 엮음, 『국어국문학사전』, 일지사, 1971, 294쪽., 윤치부, 앞의 글, 5쪽에서 재인용.

35) 장덕순, 「해양문학의 백미 표해록」,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추진회, 1987., 윤치부, 앞의 글, 6쪽에서 재인용.

36) 구모룡, 앞의 책, 100쪽.

문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표해록』을 비롯한 여러 표류기는 공식적인 사절단에 의한 기록들과도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표류인은 기본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약자이다. 때문에 경계 하고 감추는 것이 많은 공식적인 사절단이나 함포로 무장한 서양세력을 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물론 표류인은 거주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역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외부에서 온 표류인에 대한 호기심 또한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다.³⁷⁾

『표해록』은 장한철 일행이 제주를 출발한 뒤 느닷없는 풍랑에 휘말려 호산도 →청산도→제주로 이어지는 여정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다. 기행지라 할 수 있는 호산도와 청산도에 머무는 시간이 배 위에서 보낸 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두 섬에서 장한철 일행이 살아가는 장면은 비교적 강렬한 인상을 던진다. 표착지의 풍토, 특산물,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칠지 모르는 표류의 순간이었지만 장한철은 기존 문헌, 설화, 꿈 등을 삽입하며 표착지에서의 감흥을 담아낸 기행문학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사실 보고에 치중한 기록을 넘어서 기이한 작품을 만들어냈던 일을 떠올리게 만든다. 박지원은 건문한 바를 적은 일기라고 하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장을 쓰고, 사실과 허구를 섞어놓았다. 건문한 것을 말 하면서 과거를 회고하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게 했다.³⁸⁾

‘표해록’ 작품은 표류와 외국 여행이라는 두 가지 다른 체험을 기록하게 된다. 표류의 결과로 외국 여행이 일어나게 되지만 표류의 상황과 물에 도착한 후 외국 여행의 상황은 큰 차이를 지닌다. 다음으로 ‘표해록’ 작품은 체험이 모두 끝난 후, 곧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난 후의 기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해록’ 작품은 체험을 마치고 돌아온 후 표류자가 직접 기록한 것이 있고, 표류자가 직접 기술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제삼자가 듣고 기록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죽을 고비와 체험을 모두 마치고, 이미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난 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시 경험에 대한 작자의 평가와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³⁹⁾

장한철 『표해록』은 경험자가 직접 쓴 기록으로, 체험을 모두 끝낸 뒤 훗날 그 여정을 낱짜별로 담아 놓았다. 표류로 인한 예기치 않은 여정이었지만 건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국가와 국가, 바다와 물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문화적 접촉을 벌였고 이는 기행문학적 성격의 산문으로 살아났다.

최부의 기록이 표류와 중국 여행이라는 특수한 체험을 기록한 기행문학 작

37) 최성환,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145쪽.

3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9, 435쪽.

39)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11~12쪽.

품⁴⁰⁾이라면, 장한철 『표해록』 역시 표류와 호산도·청산도 여행이라는 특수 체험을 적어놓은 기행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장한철은 당초 과거보러 가는 길에 나라의 풍물을 구경할 생각으로 제주를 떠났다. 호산도와 청산도는 장한철이 원하던 여행지가 아니었지만 두 섬에 도착한 이후 그 심경을 서정적으로 담아낸다. 호산도에서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감귤, 전복 따위를 실컷 먹으며 기행지에서 여유를 즐긴다. 청산도에서는 표류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섬 주민들의 모습이 정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 것과 함께 처음 만난 여인과의 사랑이 그려지는 등 기행문학에서 볼 수 있는 낭만이 배어난다.

셋째는 기록문학적 성격이다. 기록문학 작품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기록문학 작품은 가장 사적이며 친근한 개인의 문학으로 지적된다. 체험의 주체가 작자 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시간, 장소, 인물, 사건 등이 허구가 아닌 일차적 사실성에 근거를 두고 기술되었다는 점도 독자들에게 신뢰성과 함께 강한 호소력을 전달한다. 더불어 평범한 인물이 평범한 일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일상적 생활의 기록만으로는 기록문학적 독자성이나 다른 특질을 찾을 수가 없다. 기록문학 작품은 비밀상적 의미를 지닌다⁴¹⁾는 얘기다.

‘표해록’은 애초부터 기록문학적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 경계를 넘어 외부세계와 만나는 표류 경험은 정부 관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었고, 그 때문에 구술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확보하려 애썼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근대 조선·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삼국이 각각 해금 체제 아래서 자국민의 자유로운 항해를 금지했던 시대가 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국외 표류는 해금체제의 영역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대부분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였지만, 해금체제 하에서 해외 여행과 사적인 대외 무역이 금지 당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다.⁴²⁾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소재 표류기들은 홍문관이나 승정원 등에서 임금께 보고하기 위해 표류자들의 구술을 토대로 기록된 것⁴³⁾들이다. 임금은 표류자들이 돌아왔을 때 표류인들을 직접 불러서 표류한 연유나 견문 등을 물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 표류인들의 해외 경험이 국가의 주요 정보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장한철의 『표해록』 역시 그 같은 이유로 기록문학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표류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 같은 체험을 경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흔치 않다. 지은이는 새로운 문화·

40) 위의 글, 68쪽.

41) 유기룡, 「기록문학의 작품적 한계설정-년픽션문학연구 1」, 『어문학』 통권 29호, 한국어문학회, 1973, 22~23쪽.

42) 최성환, 앞의 글, 10쪽.

43) 윤치부, 앞의 글, 17쪽.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더불어 바다에 내팽개쳐진 인간 군상들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두려움과 불안감,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순간의 여정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독자들은 야만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표류가 얼마나 끔찍한 체험인지 보고해 놓은 『표해록』을 통해 바다의 존재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 여행이 드물었던 시대에 유구에 있는 무인도인 호산도에서의 경험과 귀에 익지 않은 국내 섬 청산도에서의 여정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다. 표류인들이 접촉한 새로운 문화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표해록』을 공유함으로써 장차 표류에 처해졌을 때 낯선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복잡한 모험담의 연속인 『표해록』은 왜적의 습격을 받고, 안남 세자가 제주도에서 피살된 일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 남쪽의 대해가 국제간의 교역과 쟁패가 벌어지는 안마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충격을 전했다.⁴⁴⁾

1770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5월 8일(음력)까지의 여정이 차례로 기록된 『표해록』은 낯선 땅에서 만난 정보를 세세하게 전달한다. 첫 표착지 호산도에서는 남북 길이가 50리 남짓이고 동서가 5리가 못 미치는 무인도라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린다. 또한 섬에 서식하는 동식물, 풍토, 특산물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표착지인 지금의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관한 대목에서는 섬의 넓이가 30리며 민가가 몇 백 집에 달한다고 기록해놓았다. 산에 짐승이 없고, 들판엔 꿩이 없으며, 논은 아주 비옥하고 해산물 역시 풍부하다는 점도 관찰해 적었다. 둔장한 사람, 검찰 한 사람이 청산도를 맡아 다스리고 남자보다 여자의 인구가 많다는 내용도 보인다. 섬 주민들이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록도 18세기 초 청산도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표해록』의 기록문학적 성격은 호산도, 청산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청산도에 표착한 이후 제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물에서 제주로 향하는 뱃길을 알 수 있다. 해외에 표착했던 표류인들이 남긴 표해록에 비해 국내의 송환 노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로 향하기 직전 해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다.

물론 『표해록』에는 허구적 장치로 보이는 장면이 등장한다. 고향집이 나오는 꿈을 통해 귀환한 날짜를 암시하고, 배가 난파되기 직전 꿈속에서 만난 여인과 청산도 여인이 동일인이라는 내용은 『표해록』이 논픽션인지 의문을 던지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록문학적 성격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1884년 귀족혁명의 전말을 그 이듬해 망명처인 일본에서 서술한 보고문인 김옥균의 『갑신일록』의 내용을 두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거나, 부분적인

44) 조동일, 앞의 책, 438쪽.

착오는 보이지만 대체로 믿을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것의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나, 부분적인 착오를 인정하는 경우나 그것이 지닌 보고문학으로서의 가치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저자인 김옥균의 상상적 편향을 그의 어느 글보다도 명확하게 내보여줄 뿐 아니라, 개인의 정열이나 의지가 정치 외교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좌절하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주기⁴⁵⁾ 때문이다.

장한철이 남긴 문헌은 『표해록』 외에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제주를 출발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노정을 세밀하게 담아낸 『표해록』은 기록 문학에 값한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일행들의 잇단 죽음에 이어 살아남은 자들이 귀향 이후 시름시름 앓다 저 세상으로 떠났음을 알려주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표류의 상황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가감 없이 드러낸다. 바다에서 헤맨 기간은 10여일 남짓으로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회로애락이 끊임 없이 엇갈리며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처지를 살필 수 있게 만든다.

넷째는 기록문학적 성격과 연결 지어 나타나는 일기문학적 성격이다. 장한철은 1770년 12월 25일 출발해 1771년 5월 8일 마지막 기록까지 마치 그 날 그 날의 일기를 써나가듯 『표해록』을 서술해 놓았다.

한국문학 속 일기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양적으로 풍부해졌고 단순한 사실 기록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식을 많이 반영하게 되었다. 사적인 견문이나 체험을 통해 주관성을 드러내면서 감동적인 정서를 표현하고자 개성적인 문체도 형성되기 시작했다.⁴⁶⁾

이우경은 조선후기 일기문학의 특징과 생성 배경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첫째, 일기(日記), 일록(日錄), 록(錄) 외에 기사(記事), 기문(記聞), 사초(史草) 등이 모두 일기 형식인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날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록한 모든 기록은 명칭에 관계없이 일기에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이들의 서술 태도는 거의 날마다 기록한 것, 어느 기간 동안 특히 중요한 사건을 위주로 띄엄띄엄 쓴 것, 장시간에 걸쳐 지속된 과정이지만 총 기록 횟수는 몇 번에 불과한 것 등이 있다. 셋째, 작자층에서 볼 때 작자가 직접 쓴 작품 중에는 주관성이 강하게 나타나 문학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작품이 많다. 그러나 타인의 행적을 어떤 목적에 의해 기록한 것들도 적지 않다. 넷째, 대부분은 한문으로 표기된 남성일기이다. 이들은 생활공간이 바깥 사회이고, 대체로 의식이 있는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외부 사회 의식이나 역사의식이 반영되어 깊은 사색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대체로 체험 소재에 따라 전쟁일기, 궁중일기, 여행일기, 유배일기, 표류기로 나눌 수 있다.⁴⁷⁾

표류기는 말 그대로 표류에서 살아남은 자가 돌아와서 쓴 기록을 말한다. 장한철 『표해록』은 표류기의 대표작이다. 이우경은 “표류기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기후

4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2, 77쪽.

46)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22쪽.

47) 위의 책, 22~25쪽.

로 말미암아 재해를 당한 위기 상황에서 이중 삼중으로 겪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긴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며 “이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한 자만 쓸 수 있으며, 위기 발생과 극복 과정의 반전을 거친 최후의 승리 때문에 작품의 격식은 발단-위기-갈등(극복과정)-대단원으로 진행되므로 마치 소설 같이 짜여져 있다”⁴⁸⁾고 했다. 이우경은 이 같은 표류기의 예로 장한철 『표해록』을 비롯 최부, 이지향, 문순득, 최두찬의 ‘표해록’을 들었다.

일기문학적 성격을 지닌 ‘표해록’은 날짜와 날씨 등을 명시해 놓아 해당 기록이 실화임을 알린다. 장한철 『표해록』은 일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형식의 글이 삽입되는 점이 특징이다. 청산도에서 떠나보낸 일행들의 고향을 달래는 제문이나 제주로 돌아온 이후 회상장면에 등장하는 한시는 담담한 어조로 그날의 일상을 풀어내는 낯익은 일기의 형식을 흐트려 놓는다.

해양문학에서 일기문학까지 『표해록』에서 엿보이는 여러 갈래의 문학적 성격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다. 『표해록』이 어느 하나의 성격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다양한 시선으로 읽힐 수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는 한편으로 특정 테두리에 『표해록』을 가둬놓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작품이 품고 있는 문학적 가치를 색색의 빛깔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48) 위의 책, 25쪽.

Ⅲ. 『표해록』의 다성성

바흐친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을 대화성에서 찾았다. 자연과학은 흔히 독백적-단성적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규명하는 반면 인문과학은 주로 대화적-다성적 방법으로 그것을 규명⁴⁹⁾하는 것이다.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탐색하고 있는 장한철 『표해록』은 그런 점에서 다성성이론이 적용 가능한 작품이다.

바다에서의 표류는 곧 죽음과 직결되거나 낯선 땅으로의 추방을 의미한다. 다행스럽게도 이국땅에 표착한다는 것은 그래도 실낱같은 귀환의 희망이 있었음을 말한다. 당시로서는 이국땅에 표류한다는 것이 대외적인 국가사이면서도 개인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⁵⁰⁾

다성적 문학의 작중인물들은 삶의 전환점이나 기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대개의 경우 삶의 벼랑에 선 채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고 있다. 바흐친이 다성적 문학의 대표 작가로 꼽았던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이런 특징은 흔히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 톨스토이와 비교해 볼 때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죽음은 대개 살인이나 자살과 같은 비정상적인 죽음이 대부분이다. 죽음을 한 인간의 의식을 종결시켜 주는 최종적인 현실로 파악하는 톨스토이와 달리 그는 죽음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종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흐친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톨스토이의 작중인물들은 마치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 가듯이 한 의식에서 다른 의식으로 쉽게 옮겨가는 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중인물들은 흔히 방과 방 사이에 놓여있는 ‘문지방’, 즉 위기나 전환점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바다를 배경으로 쓰인 『표해록』은 시종 그런 상황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삶의 비결정성을 말해주듯 표해록 속 인물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워 하면서도 급박한 현실 앞에서 각양각색의 태도를 보이며 삶과 죽음에 대한 다종다양한 태도를 드러낸다.

『표해록』에서 일부 개연성을 암시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예측불허의 사건이 나열되며 인물이나 행동의 고정된 이미지를 헤쳐 놓는다. ‘나’의 모습만 해도 요동치는 바다 앞에 의연하면서도 불안해 하고, 근거 없는 민간신앙을 따르는 일행들을 나무라면서도 꿈이나 점괘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인 ‘나’의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공존하는 점도 『표해록』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실제로는 표류의 끝에 새로운 표착지가 나타날 가망이 없는 데도 ‘나’

49) 김옥동, 앞의 책, 195쪽.

50) 해양수산부, 『표해록과 해양사』, 『한국의 해양문화』5, 2002, 235~236쪽.

는 다음 기착지를 둘러대며 일행들을 안심시킨다.

이런 이유로 다성성 이론을 통해 장한철 『표해록』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저자는 험한 표류길에서 얻은 정보를 순차적 시간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심리를 포착해 독자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표류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기행이지만 예고되지 않는 사건이다. 언제, 어디서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갈지 모른다. 비결정성, 비종결성, 불확정성을 통하여 존재보다는 생성, 결과보다는 과정,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을 중시하는 바흐친 이론의 ‘대화주의’⁵¹⁾처럼 표류는 불분명한 과정 속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래로 흘러가는 일이다.

장한철 『표해록』에서 시간의 흐름은 공간의 이동을 낳았다. 표류가 도달한 종착지는 ‘낮선 땅’이거나 ‘귀환’이기 때문이다. 작중 인물들은 쉴 새 없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섬을 떠나면 또 섬이다.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이들의 귀환은 자꾸만 유예된다.

이 과정에서 순차적 시간 속으로 자꾸 꿈이나 신화가 끼어든다. 여기서 꿈이나 신화는 퇴행적 시간에 가깝다. 현실에 발디딘 채 바로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꾸 어른거리 헛걸음을 놓게 된다.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중심적 행동이 엇갈리며 나타난다. 주인공의 의도가 배인 내포적 언술과 배치되는 외연적 언술이 동시에 발화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속으로는 절망을 외치지만 겉으로는 희망을 노래한다. 외연적 언술은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언술이지만 그로 인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 두 개의 목소리가 융합될 때 주인공의 온전한 심리가 그려질 수 있다.

장한철 『표해록』이 쓰여진 시기는 18세기 초반이다. 김현주는 판소리에 나타난 다성적 구조를 살피면서 다성성이 이 시기 문화예술의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폈다. 그는 이와 관련 18세기 들어 성행한 일부 사설시조가 두 사람 이상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었던 점, 시나위와 산조와 같은 악공 개인의 즉흥 변주 음악이 성행한 점, 풍속화와 민화에서 액자 외부 시점을 지배적인 틀로 하되 사이사이에 액자 내부의 관찰자가 느낀 시점도 배치해 시점의 혼합이 이루어진 점, 17세기말부터 18세기에 걸쳐 제작된 백자 달항아리가 상하 접합 성형기법을 사용한 점 등을 들었다. 이들 여러 장르에 나타나는 다성적인 구조가 모두 그 세부내용이 동질적이거나 같은 층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당대의 여러 문학예술 장르에서 유난히 다성적인 구조가 돌출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다성성이 출현한 배경이 어느 정도는 그 시대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도⁵²⁾될 것

51) 호병탁, 「한국현대소설의 ‘대화적 상상력」,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3, 5쪽.

52) 김현주, 「판소리의 다성성, 그 문체적 성격과 예술·사회사적 배경」, 『판소리연구』제13집, 판소리학회, 2002, 143~144쪽.

이라고 했다.

『표해록』이 이 같은 분석과 얼마나 맞닿아있는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표해록』이 종전의 ‘표해록’에 비해 한층 자유분방하고 복잡한 심리묘사를 그려내면서 양가적 측면을 지닌 다성적 문학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1. 시간·공간의 구조

한 편의 문학작품에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시간이 가지는 동시성과 공간이 가지는 공시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문학 작품의 배경이 탄생한다. 문학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허공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다. 문학의 시간과 공간은 작중 인물들의 행동에 필연성을 부여해주고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뿐 아니라 스스로 독특한 틀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크로노토프의 기본이 만들어진다.⁵³⁾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을 크로노토프(chronotope)(문자 그대로 시공간(時空間)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부른다. 크로노토프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일부로 도입되어 변용된 용어이다. 상대성 원리에서 이 단어가 지니는 특수한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문학비평을 위한 비유적인(그러나 전적으로 비유적인 것만은 아닌) 표현으로 사용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공간과 시간(공간의 제4차원으로서의 시간)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⁴⁾

도스토예프스키가 다성적 문학의 특징인 대화를 한층 밀도 있으면서 극적으로 열려 있게 만들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시간 감각이 작용했다. 바흐친은 크로노토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 등장하는 크로노토프를 동시성의 일종으로 파악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상상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이해했다. 그는 여러 동향들을 목소리들로 육화하고, 목소리들로 하여금 서로 맞부딪쳐 싸우게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비록 그 목소리들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동시적인 것으로 재현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시간 차이는 언제나 극복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데올로기들 간의 동시적 대화도 창조될 수 있었다.⁵⁵⁾

53) 유경수, 「한승원 소설의 크로노토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5쪽.

54)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260쪽.

55) 게리 솔 모슨·캐럴 에머슨, 앞의 책, 452쪽.

게리 솔 모슨과 캐럴 에머슨은 크로노토프의 장르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⁵⁶⁾해 놓았다.

첫째, 크로노토프는 작가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설속의 세계와 동일한 종류의 시간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서사 시인은 절대로 서사시의 주인공들인 아킬레스, 아담 등과 가까워질 수 없다. 즉, 소설은 서사시와 달리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과 같은 종류의 시간에 산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두 세계간의 상호 교환이 일어나게 한다.

둘째, 크로노토프는 다양성과 다중성이라는 속성을 지녔다. 그로 인해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연한 기준이 된다. 한 편의 작품속에는 다양한 크로노토프들이 들어있어서 여러 사건들을 재현할 수 있으며, 또 각각의 크로노토프는 이중적, 다중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크로노토프간의 상호연관성으로서의 '대화성'을 들 수 있다. 크로노토프 역시 다른 크로노토프와 상호 관계를 맺는다. 이 점에서 소설은 서사시와 상반된다. 즉, 서사시에서는 크로노토프는 절대 과거라는 단일성을 지니지만, 소설에서는 다양한 크로노토프가 등장하며 크로노토프들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작품의 크로노토프와 독자의 크로노토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서사시가 과거고착적인 데 반해 소설이 미래지향적이고 비종결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크로노토프의 대화성에 있다. 모든 대화들은 특정한 크로노토프안에서 발생하며, 크로노토프 역시 대화적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허구와 창작의 경계가 불분명해 보이는 해양문학 작품이면서 기행 산문인 장한철의 『표해록』은 특정한 시공간을 통해 생사를 넘나들며 독자들의 시선을 잡아끌만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하지만 작품 속 시공성은 평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제주를 출발해 예기치 않은 자연적 조건에 휘말려 정처 없이 떠돌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대화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제주라는 공간 역시 바다로, 이름 모를 섬으로 쉴 새 없이 이동하며 만남과 이별, 화해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빚어낸다. 이 같은 시공성은 '표해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다.

문학작품 안에서 형상화된 시간과 공간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문학에서는 의미 없이 시간이 흐르거나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 등장하는 일은 없다. 모든 문학작품은 그 자신만의 독특한 크로노토프를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매듭이 묶이고 풀어지게 된다.⁵⁷⁾

『표해록』은 장한철이 지난 경험을 사실대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했지만, 지은이가 각각의 시간과 공간을 조절함으로써 특정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

56) 김정아, 「이청준의 「이어도」에 나타난 「일탈」의 크로노토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4~15쪽.

57) 유경수, 앞의 글, 11쪽.

던 것으로 봐야 한다. 꿈 속 장면의 삽입 같은 장면이 한 예다. 『표해록』 속 시간과 공간은 서로 결합하고 대화하면서 표류가 안고 있는 고통과 희망의 동시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표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내 왜적의 습격을 받고 안남 상선에 올라 무사히 귀환하는가 싶었지만 안남세자 피살설로 다시 바다에 버려진다. 그러다 마침내 청산도에 표착하지만 그 과정에서 크나큰 절망을 맛보는 식이다.

1) 시간의 순차적 구조

시간이란 칸트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관찰했듯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양식이다. 그것은 공간보다 더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어떠한 공간적인 질서도 부여될 수 없는 인상이나 감정이나 관념들 같은 내면세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공간이나 혹은 인과성, 실체와 같은 다른 일반적 개념들보다 더 즉각적이고도 간접적으로 주어진다. 경험에 대한 엄청난 혼동은 어떤 요소들이 계속 이어지거나 변화하고 혹은 지속된다는 직접적인 자각을 전달해 주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연속과 흐름과 변화는 우리 경험의 가장 직접적이며 원초적인 자료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시간의 측면들이다. 사실상 시간적인 지표를 갖지 않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⁵⁸⁾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쓰이는 『표해록』은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의 한편에 경험적이고 심리적이며 주관적인 시간이 공존하는 작품이다. 여정을 따라 날짜별 순서로 기록해 놓았지만 문학 속의 시간은 돌연 과거로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고향 집으로 주말을 지내기도 한다. ‘나’의 심리 상태에 시간의 잣대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이는 한편으로 문학 속 시간의 영원성을 의미한다. 『표해록』에 특정 날짜를 언급해 놓았지만 그것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다. 과거의 일들을 재구성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지금’의 상태를 가리킨다. 한스 마이어호프에 따르면 “아무리 자아가-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자연의 시간 구조 속에 깊숙이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은 연대기적 시간 순서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보여준다.”⁵⁹⁾

장한철의 『표해록』은 1770년 12월 25일부터 1771년 5월 8일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지난 이야기를 적어 간직해 두겠다며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해 나갔다.

1770년 10월 장한철이 향시에 수석으로 합격하자 마을 어른들은 그에게 서울에 가서 과거 보기를 권한다. 관가에서도 노자를 도와주면서까지 예조에서 보이

58) 한스 마이어 호프, 이종철 옮김, 『문학 속의 시간』, 문예출판사, 2003, 13쪽.

59) 위의 책, 82쪽.

는 회시에 응하도록 권한다. 그동안 향시에 몇 차례 합격했지만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일을 포기했던 장한철은 상경을 결심한다. 초시에 합격한 적이 있는 김서일에게 변화한 서울을 함께 유람하자고 부추겨 뱃길에 오르게 된다. 제주를 떠나는 일은 제주 선비들에게 기회였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며 두 사람은 제주를 떠났지만 결국 바다를 표류하다 김서일은 목숨을 잃고, 장한철은 가까스로 생환한다. 장한철이 『표해록』의 맨 마지막에 써놓은 날짜는 1771년 음력 5월 하순이다. 저자는 4개월여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표해록』을 썼다.

『표해록』은 외형적으로 실제적 시간의 진행 순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일기 형식으로 날짜와 그 날의 날씨를 일일이 적은 뒤 해당 날짜에 있었던 사건들을 풀어내고 있다. 『표해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1770년 겨울. ‘나’(장한철)는 김서일과 함께 서울 가기를 결심한다.⁶⁰⁾
- ② 12월 25일. 나를 포함 이창성 유창도 김순기 김차결 고득성 정보래⁶¹⁾ 유일춘 이성빈 김수기 이복일 강방유 김방완 양윤하 이도원 박항원 김복삼 이득춘 고복태 양윤득 이우성 이춘삼 이대방 김필만 김순태 장원기 백사렴 김철백 김서일 등 29명이 한 배에 타고 출발하다. 날이 저물자 막장 같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온다.
- ③ 12월 25일. 저물 무렵 노어도 앞에 도달하지만 배가 바람에 물리면서 배를 대지 못한 채 조난당했다.
- ④ 12월 26일. 흐리다. 해가 뜰 무렵 배는 물과 하늘 사이에 떠 있다. 오후가 되니 한라산도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다시 보이지 않는다. 바람은 점점 사나워지고, 파도도 다시 날뛰기 시작한다. 동이 터올 무렵 바람이 잔다.
- ⑤ 12월 27일. 맑다. 이날 밤 바람은 가볍게 산들거리고 파도는 잠잠하다. 나는 배가 유구에 곧 도착할 것으로 알고 일행들에게 호패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명령한다. 광해군 때 제주에 표류했던 유구 태자가 제주목사에게 죽임을 당해 유구에도착하면 제주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⑥ 12월 28일. 맑다. 조그마한 섬의 북쪽에 닿다.
- ⑦ 12월 29일. 흐리다. 제주에서 나는 전복, 굴나무가 있는 섬에서 일행들은 배 불리 먹는다. 밧줄과 샷대를 모두 잃어버리고 뿔감과 물도 바닥난 일행들은 섬 주변을 지나는 배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높은 봉우리에 올라 깃대를 세우고 불을 피워 올렸다.

60) 이 논문의 모든 번호는 필자가 붙인 것이다.

61) 정병옥은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6집에 실린 『표해록』 원문에서 정보래(鄭寶來)로 읽었지만, 김봉옥 등은 정보성(鄭寶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초서로 쓴 이를 성(成)을 올 래(來)로 잘못 읽었다는 것이다. 장한철, 김봉옥·김지홍 옮김, 앞의 책, 202쪽. 심성재 필사본을 원전으로 삼은 『그리운 청산도』에서도 정보성으로 썼다. 장한철 외, 현해당 옮김, 앞의 책, 17쪽.

⑧ 12월 30일. 비가 오다. 언덕에 의지해 처놓은 막에서 퍼붓는 비를 피하다. 선 달그름, 넓으나 넓은 땅에서 몸 둘 방 하나 없는 현실에 일행들이 모두 눈물을 흘린다.

⑨ 1771년 1월 1일. 맑다. 만 리나 떨어진 먼 지역에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슬픈 회포를 누르기 어려워 서로 마주보며 운다. 대낮에 한 점 돛대가 보여 연기와 불빛으로 구조를 요청하자 왜인 10여명이 배에서 내려 일행들과 만난다. 하지만 왜인들은 나와 일행들에게 재화가 없음을 알자 칼을 빼어 휘두르며 일행들의 옷을 벗겨 나무에 매단 채 떠나버린다.

⑩ 1월 2일. 흐리다. 배 한척이 다시 섬으로 다가오지만 전날처럼 해적이 아닐까 우려한다.

가까이서 보니 왜선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해 울부짖으며 애걸한다. 나와 일행들은 안남국에 산다는 명나라 사람을 따라 커다란 집 같은 배에 오른다.

⑪ 1월 3일. 흐리다. 나는 감나무 잎사귀가 파릇파릇 돌아나고 버드나무 그들이 무르익는 고향 마을에서 집의 아이가 앵두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꿈을 꾸다. 김서일은 꿈 이야기를 듣고 푸른 버들, 붉은 앵두는 사오월에나 볼 수 있다며 울여름⁶²⁾이 되어야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안남국 사람들을 통해 직전에 머물렀던 섬이 유구 지방의 호산도(虎山島)임을 알게 된다.

⑫ 1월 4일. 흐리다. 안남 사람 방유립을 통해 청려국의 향사도에 조선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⑬ 1월 5일. 맑다. 표류하던 일행은 한라산을 가까이 보게 된다. 탐라국의 대산이라며 기뻐 울부짖는 일행을 지켜보던 안남 사람들은 돌연 29명을 작은 배에 실어 바다로 내려 보낸다. 제주목사가 유구 세자를 죽였다고 하는데, 유구 세자가 아니라 안남 세자임을 알게 된다.

⑭ 1월 6일. 바람 불다 비 오다 한다. 배는 노어도 서북쪽에 닿는다. 사공은 배가 파산되기 쉬운 곳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비몽사몽의 순간에 한 미녀가 소복을 입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 나는 점을 본 것처럼 해시(亥時)에는 살 수 있을 거라고 거짓으로 말한다. 이 말을 믿은 일행들은 해시 무렵 눈앞에 나타난 하늘 아래 큰 산을 보고 무작정 배에서 뛰어내려 해안가로 향한다. 하지만 해안에 올라오는데 성공한 사람은 29명중 10명이었는데 그중 2명은 마을까지 오는 동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살아남은 일행이 도착한 곳은 청산도다.

⑮ 1월 7일. 바람. 이창성 유창도 김순기 김철백 김재완 양윤하 그리고 나와 김서일 8명이 이승으로 살아 돌아왔음을 다시 확인하다. 어젯밤 언덕을 오르다 죽은

62) 정병욱의 번역문은 ‘내년 여름’이라고 써놓았지만, ‘울 여름’의 오기(誤記)이다. ‘옛 제주인의 표해록’에 실린 원문에는 이 대목이 “碧柳紅櫻,自是四五月之時物也,余之歸期來夏”라고 나와 있다. 장한결 외, 김봉옥·김지홍 옮김, 앞의 책, 361쪽.

박항원 이도운 두 명의 시체를 찾아낸다.

⑯ 1월 8일. 맑다. 청산도는 신지도진에 속한 섬으로 민가가 몇 백 집에 달한다. 남자수가 적은 데 비해 여자의 수가 더 많다.

⑰ 1월 9일. 맑다. 물에 빠져 죽은 21명의 혼을 제사지냈다. 섬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사당에서 소복한 여인을 만난다. 풍파를 만나 까무러쳐 정신을 잃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던 그 여인임을 알고 놀란다. 여자는 조씨의 딸이었다.

⑱ 1월 10일. 맑다. 섬에서 세금을 거두는 궁가의 심부름꾼에 의해 청산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⑲ 1월 11일. 맑다. 조씨의 딸과 하룻밤을 보내다. 여인은 나에게 5년 기한으로 과거에 합격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한다. 만일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겠다고 말한다.

⑳ 1월 12일. 춥다. 지도를 거쳐 육지로 나가기로 하다.

㉑ 1월 13일. 맑다. 8명이 청산도를 빠져나와 지도 당촌에서 잤다.

㉒ 1월 14일. 맑다. 지도에서 고금도로, 다시 마두진에 도착하다.

㉓ 1월 15일. 저녁때 비가 오다. 마두진에서 강진 남당포로 가다. 남당포진에서 장삿일로 육지에 왔던 제주사람 김중택 이봉래 김복성 세 사람을 만나다. 제주사람 김창현도 나를 찾아보러 왔다. 내일 아침 고향으로 한 배에 타고 돌아가길 권했으나 나는 육지로 나왔으니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가겠다고 말한다. 실은 바람이 높고 바다가 험한 시기여서 사오월까지 기다려 바람이 잔잔하면 배를 타려고 서울로 가는 핑계를 댔던 것인데, 제주사람 김창현이 서울길에 동행하겠다고 말한다.

㉔ 1월 16일. 맑다. 김서일 등 일행과 이별하다. 김창현의 설득으로 결국 서울에 올라가기로 한다.

㉕ 1월 19일. 길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

㉖ 2월 3일. 서울에 들어섰다. 과거에 떨어진 뒤 3월 초사흘 서울을 떠나 내려왔다.

㉗ 5월 8일. 고향으로 돌아왔다.

장한철은 『표해록』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여정을 정확하게 제시해 놓았다. 물론 이는 장한철 『표해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실제 기록을 담은 문학에서는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표해록』은 음력 5월 하순 ‘녹담거사’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장한철은 천신만고 끝에 다시 고향에 발을 디딘지 20여일쯤 지나 붓을 들었다. 그리고선 어제일처럼 바다위에서 겪은 일을 풀어냈다.

시간과 공간의 내적 관계인 크로노토프는 『표해록』에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한층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크로노토프는 ‘시대적 착오’와 ‘지리적

착오'의 결합⁶³⁾체이다.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세계관이 달리 그려진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한 인간의 관념과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수한 사건, 혹은 보통 그런 사건의 현장으로서 제공되는 특수한 장소는 어떤 크로노토프적인 아우라를 획득한다. 예컨대, 꼭 아슬아슬한 때 벌어지는 추적의 가능성이나 마지막 순간에 탈출할 가능성 자체가 모험 시간을 암시할 것이다. 목가적인 시골 환경은 전원시에 전형적인 사건을 예시할 것이다. 살롱은 특정한 서사에서 살롱에 전형적인 대화나 입신 출세주의의 어조를 암시할 것이다. 그 시간이나 장소는 이런 이유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⁶⁴⁾

장한철의 『표해록』은 장한철과 그 일행이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 놓인 채 바닷길에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다. 저자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꿈과 현실의 문턱을 넘나들며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을 재현해낸다.

① 12월 25일

수평선 너머로 아침 해가 방긋이 솟아오르자, 남풍이 잠깐 간들거린다...

배를 매어두던 줄을 풀고 항구를 벗어나 바람따라 북으로 북으로 치달으니, 그 속도가 나는 듯이 빠르다. 보이는 것이라곤 푸른 바다와 하늘 뿐, 배는 뚝뚝 반공에 떠있고, 멀리 아물거리는 한라산의 모습은 가이없이 푸르고 넓은 바닷속으로 차츰 사라져간다.(20~21쪽)⁶⁵⁾

② 28일, 맑다

하늘은 아직도 밝아오지 않는다. 안개 기운이 다시 일어나 불과 몇 발 앞을 분별할 수가 없다. 기운이 아침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니 북풍이 잠깐 인다. 짙은 안개가 개자 사면이 흰히 드러난다. 배의 위치를 보니, 조그마한 섬의 북쪽에 와 있다. 바람을 따라 점점 그 섬으로 다가서고 있다. 즐거워하는 기색이 온 배에 가득하다. 마치 꿈속과 같다.⁶⁶⁾(48쪽)

③ 29일, 흐리다

나는 뱃사람들을 거느리고 높은 데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보이는 것은 푸른 물결뿐이요, 멀고 넓어서 끝이 없다. 남쪽을 바라보아도 끝이 없으나, 마치 섬들의 모습이 있는 듯한데 이것이 혹시 유구의 지경이 아닐까.⁶⁷⁾(52쪽)

부푼 마음을 안고 배에 몸을 실은 장한철의 첫날 모습은 평온하기 그지없다. 맑은 날씨에 남풍이 불고 바닷길을 헤쳐 가는 배의 모습도 거칠 게 없다. ①에서

63) 여흥상, 『마흐친의 문학회론』, 문학과지성사, 1997, 61쪽.

64) 게리 솔 모슨·캐럴 애머슨, 앞의 책, 635쪽.

65)十二月二十五日,海旭初昇,南風乍起...解纜出港,隨風北上,其疾如飛,但看水天一色,船在半空,而一點漢竿,漸入滄茫之域. 이하 원문은 김봉옥·김지홍이 옮긴 『옛 제주인의 표해록』을 기본 자료로 했다.

66)十二月二十八日,晴,天未明,霧氣復作,不辨尋丈,久之,海旭初生,北風乍起,宿霧開廓,四面呈露,見船在小島之北,而隨風,漸近於島矣,滿船喜氣,如在夢寐中.

67)十二月二十九日,陰,余率舟人,登高四望,則萬里滄波,一望無際,但南望,雲際,依然有島嶼之形,疑是琉球之界矣.

보듯 바람따라 북으로 북으로 순항하는 모습이 경쾌하다. ‘속도가 나는 듯이 빠르다’는 대목에서는 장한철 일행 앞에 거칠 것 없는 바다가 펼쳐질 듯 하다.

하지만 이내 맑은 날씨가 흐리게 바뀌고, 푸른 하늘과 바다에 안개가 낀다. 날씨는 맑았지만 안개 기운이 일어나는 바다는 표류에 대한 전조다. 짙은 안개가 걷히고 나서야 비로소 첫 표착지에 다다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는 바다와 육지의 날씨는 장한철 일행의 고난을 예견한다.

항해 5일째, 호산도에 도착했지만 그 섬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유구의 지경이 아닐까’라고 되뇌이는 장면은 바닷길에 나선 이들이 언제쯤 귀향할지 모르는 불안의 시공간으로서의 크로노토프다. ③에 나타난 시공간은 언제 어디서 육지가 나타날지 모르는 막연함을 지니고 있다.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에서 ‘나’는 신기루 같은 섬의 환상을 본다. 제주를 떠난 시간이 오랏수록 제주로 돌아가는 길은 멀어 보인다.

장한철은 첫 표착지 호산도에서 『표해일록(漂海日錄)』을 작성해서 가족으로 만든 행담에 넣어둔 적이 있다. 하지만 마지막 표착지 청산도에 표류하면서 배 위에 실려있던 행담안의 지화나 문자 등이 물범벽으로 모두 진흙 찌꺼기같이 되어버렸다. 호산도에서 써놓은 『표해일록』의 내용을 대부분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장한철은 뜻을 더듬어 올라가며 표류 당시 작성했던 『표해일록』에 기록해나간 내용의 대강을 기억해낸다.

이는 『표해록』이 객관적 순서에 따라 쓰인 물리적인 기록에 기초했음을 보여준다. 날짜를 매기고 날씨까지 표시해 기억 속 사건들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한 것임을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①, ②, ③은 인과적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장한철 일행이 제주도의 포구를 떠났기(①) 때문에 조그만 섬인 호산도에 닿을 수 있었던(②, ③) 것이다.

장한철 『표해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시공간의 중첩성이다. 표류에 얽힌 날짜와 날씨가 특정 공간의 배경이 된다. ‘맑다’는 순항에 대한 기대감을 안게 만든다. 맑은 날 해는 방긋이 솟아오르고 파도는 평탄한 뱃길을 재촉해 준다. 사흘 뒤, 맑은 날씨에 이어진 안개는 장한철과 그 일행이 표류의 첫 관문을 통과할 것임을 암시했고, 이내 첫 표착지인 호산도가 일행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① 30일, 비가 오다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오후가 되니 퍼붓듯이 비가 내린다. 사람들은 모두 막 속으로 말려들어 나들이를 할 수 없다. 비는 상마다 새어 마른 곳을 찾아 앓을 수도 없다. 물골들이 수참하기가 마치 물새는 배 위에 있는 것 같다. 문득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다는 어두워지며 파도가 술에 물 끓듯 끓어오른다. 한바탕 천둥이 물결 사이에서 일어나니, 번쩍거림은 어두움을 빔내고 빔은 산악을 흔들고 소리는 하늘과 바다를 진동시킨다. 돌연 한 떼의 검은 구름이 천둥과 번개를 끼고 바다에서 일어난다.⁶⁸⁾(55쪽)

68)十二月三十日,雨,朝來雨作,午後仍大霏,諸人皆卷入幕中,不得出入,而雨漏床,床坐無乾處,景色愁慘,如在漏船上 忽

② 초이튿날, 흐리다

아침에 서남풍이 사납게 불기 시작한다. 바다에 떠 있는 해도 음산해 보인다. 서남쪽을 바라보니 멀리 돛대가 시야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수적이 아니라고 어찌알랴”

한다, 나는

“바다 위를 홀로 다니며 간혹 배를 지어 도적질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 오는 배는 한 척이다. 그리고 왜선이 아닌데 어찌 도적질을 할 리가 있겠느냐”

하며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⁶⁹⁾(65쪽)

③ 초엿새, 바람 불다 비 오다 한다

해뜰 무렵에 보니 배는 한라산의 서북쪽에 와 있는데, 남풍에 몰리어 흑산도의 큰 바다를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다. 오시(午時)에 비가 내린다. 완악한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다. 서남풍이 불다가 멎었다가 한다. 배에는 돛대가 없어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윽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서풍이 분다. 배는 문득 동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 황혼이 깃들 무렵, 배는 노어도 서북쪽에 닿았다. 이는 바로 처음 폭풍을 만나 표류하던 곳이다. 저문 뒤에 서북풍이 크게 일어난다.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린다. 큰 물결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치고, 회오리바람은 바다를 체질하듯 까불어댄다. 뱃사람들은 모두 울부짖으며 죽음을 기다릴 지경이다.⁷⁰⁾(82쪽)

유구 호산도에 표류해 굴과 전복 같은 산해진미를 맛보며 잠시 행복에 젖은 장한철 일행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옴을 알려주듯 ①에서처럼 섬에 퍼붓듯이 비가 내린다. 파도는 술에 물 끓듯 끓어오른다. 이틀 뒤인 ②에 이르러 비가 그친 흐린 날씨 속에 일행들을 구해줄 배가 저 멀리 보이지만 불안이 밀려든다. 호산도에서 만났던 해적이 다시 그들을 덮치는 게 아닌가 싫어서다. 해적 대신 안남국 사람들을 만나 구조되지만 제주목사가 안남세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일행들은 배에서 쫓겨난다. 그리고선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다시 기약 없이 바다를 떠돈다. 바람 불다 비 오다 하는 ③의 상황에서 그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죽음뿐이었다. ①~③의 7일간 ‘섬→바다→섬’으로 노정을 밟는 동안 불안감과 초조,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심리적 고통이 배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바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로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이다. 비와 거친 바람은 그래서 바닷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표해록』에서 장한철 일행은 바다와 섬을 떠도는 동안 여러 차례 악천후에 시달렸다. ①~③만이 아니라 그 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높아졌다. 작중인물들은 처음 표류했던 노어도 부근에서 결국 청산도에 다다르는데, 이 과정에서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1월 6일 청산도

看天黑海昏,波濤鼎沸,一場雷霆,出自波間,閃爍晦冥,光搖山岳,碎旬震搏,聲動天海,俄而一團黑雲,挾雷電,而起於海上. 김봉옥 등은 이 원문에서 정병옥이 ‘때맞추어 오는 비 주’(霪)로 읽은 게 잘못되었다며 이를 ‘비 쏟아질 꽤’(霪)로 바꿨다.

69)正月初二日,陰,朝而西南風轉猛,海日陰噎,望見西南,遠海有風帆,諸人相顧曰,安知非水賊耶,余曰,獨行海上,有或作賊,而彼來者,乃三隻船也,且非倭船,則豈有行賊之理.

70)正月初六日,風雨,平明,見船在漢拏之西北,而爲南風所驅,漂向黑山大洋,午時,雨作,頑雲滿天,西南風,或作或輟,船無帆檣,不得趨進已,而變作西風,舟忽向東而去,黃昏時,到鷺魚島之西北,此乃當初遇風,漂流之處也,暮後,西北風大作,雨雪交下,洪濤春天,颶風簸海,舟人皆呼哭待死.

에 밀려들었을 때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튿날 마을 주민들의 간호를 받고 의식을 되찾은 이후엔 내내 날씨가 맑았다. 조씨 딸과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져야 하는 마음에 목이 메었던 장한철은 청산도를 떠나기로 정한 이튿날인 1월 12일의 날씨를 ‘출다’고 적었다. 강진에서 제주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던 1월 15일은 ‘저녁 때 비가 오다’로 되어 있다. 장한철은 서울로, 나머지 일행은 고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날, 지은이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투영시킨 듯 그날의 비날씨를 잊지 않고 기록했다.

실제 경험을 옮겨놓는 표해록의 특성상 장한철의 『표해록』은 시간의 순차적 구조를 따랐지만 날씨와 날짜로 표시되는 물리적 시간 너머에 심리적 시간이 있다. 바다라는 공간에서 체험하는 시계 시간보다 끝없이 확장될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장한철은 일행들의 불안을 씻어내기 위해 시간을 자유자재로 다룬다. 과거와 현재를 수시로 오간다. 바다는 불안과 고독을 발견하는 시공간이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안고 있다.

① “일찍 지도를 보니 유구는 남해 밖에 있으니, 곧 한라산의 정남에 있다. 옛날 교리(校理) 벼슬에 있던 최부(崔溥)란 이가 표류하여 백해(白海)를 지나가니 유구가 멀리 바라보였으나, 때마침 동풍을 만나 그곳에 정박할 수가 없다고 했다. 내가 기축년(1796년) 가을에 한라산에 올랐을 때 마침 하늘을 맑게 개고 구름은 걷혀서 눈이 닿는 데까지 멀리 내다볼 수가 있었는데, 그 때 남녘을 바라보니 바다 저쪽에 선연한 줄기 띠 같은 백사정(白沙汀)이 눈이 끝닿는 곳에 보였다. 그것은 백사가 아니라 바로 백해였지. 이로 보면 유구는 멀다해야 천리 남짓일 거야. 이제 날도 이르고, 배도 쏜살같이 달리고 있지 않나.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을 테니 유구는 결코 먼 곳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었다.⁷¹⁾(31쪽)

② 쌍오(雙梧)란 내 중부(仲父)의 당호다. 생각하면 슬프구나. 내가 어려서 고아가 되어 상오당 슬하에서 자라날 때, 나를 그럴 수 없이 귀여워해 주셨다. 마치 등백도가 형의 아이를 보존하던 풍토가 있었으므로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를 갚으려 했으나, 아직도 지극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간장이 찢어지도록 그 정리가 망극함을 모를 리 있으리요. 내가 난처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어 그 낯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보이지 않음은 중심을 위로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전력을 다하여 살아날 계획을 강구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일이 내 무심함을 꾸짖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⁷²⁾ (35쪽)

③ 제주사람 김진룡과 김만석은 나와 같은 동리에 살던 사람으로, 일찍이 기축년 가을에 바다에 빠져죽었다. 내가 까무러쳐 누워있던 중, 두 사람이 앞에 와 있음을 보았다. 진룡은 나에게 말하기

71)嘗閱地圖,大小琉球,在南海之外,即漢孛山之正南也,在昔崔校理溥,漂流過白海而行,望見琉球,而遭東風不得泊矣,余於己丑之秋,登漢孛山時,則天晴海霽,得以窮目遠眺,其時南望海外,依然見一帶白沙汀於眼盡處,此非白沙,乃白海也,由是觀之,琉球之遠,不過千餘里也,今者日向早,而船往如箭,日行千餘里,琉球匪遠矣.

72)蓋雙梧仲父堂號也,噫余幼而孤,養於雙梧堂膝下,鍾愛甚篤,有鄧伯道存兒兒之風,則余之所宜仰報者,顧如何而至恩未報,修夜隔紙,余非木石,非不摧肝裂傷,情理罔極,而所以矯情仰懷,不示幾微色於人者,莫非慰衆心,而得死力之計也,然則瑞一之責我無心者,不知我者也. 정병욱과 김봉옥 등 모두 원문 중 兄은 弟로 바뀌야 옳다고 했다. 또한 정병욱이 원문중 원(願)으로 읽은 글자를 두고 김봉옥 등은 ‘돌아볼 고’(顧)의 초서 형태로 보았다.

를,

“쓰고 계신 당건,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하고, 또 만석은 말하기를

“만약 먹을 것을 저에게 주시면, 마땅히 집개(執蓋)하여 배행(陪行)하겠습니다”

한다. 이는 만석이 살아 있을 때는 집개하는 것으로서 역을 썼고, 진룡이 살아 있을 때에는 천홀(千惚)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³⁾.(84쪽)

장한철은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놓는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표류의 바다에서 과거의 한 순간을 불러냄으로써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고, 결국 그는 살아남는다.

①에서 바닷길을 헤맬 때 장한철은 유구에 곧 도착할 것이라며 일행들을 안심시킨다. 약 300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자신처럼 표류를 경험했던 최부라는 인물을 꺼내놓는다. 최부는 1488년 정월에 제주에서 부친상 기별을 받고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류했다가 6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다. ‘표해록’을 남겼던 최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장한철 역시 살아돌아가 표류경험을 후세에 전할 것임을 암시한다.

②에서는 어릴 적 ‘나’를 키워준 중부에게 못 다한 은혜를 되갚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이르며 생존 의지를 다잡는다. 이 대목에서는 심리적 공간이 확장되며 유년시절로 돌아갔다. 불투명한 앞날은 고정된 시간으로 둔 채 장한철은 부모 잃고 중부 슬하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란 시간을 현재로 끌어와 위안을 삼고 있다.

청산도에 표착하기 이전 장한철의 눈앞에 나타난 두 김씨도 죽음의 문턱에서 앞길을 알려준다.⁷⁴⁾ ③에서 높은 관리를 위해 햇빛 가리개를 붙잡는 일을 했던 김만석, 계급이 낮은 군관이었던 김진룡의 등장은 장한철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발버둥치며 생존의 지푸라기를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한철은 『표해록』에서 거대한 시간 앞에서 삶이 차차 소진해갈 수 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그 시간을 붙잡으려 한다.

기억은 자연보다, 인간이 만든 도구들이나 역사적인 기록들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기록들이다. 기억의 복잡성과 혼동은 기억 관계들이 균일적인 연속적 순서 대신에 사건들의 비균일적인 역동적 순서를 드러내 준다는 사실로부터 야기된다. 기억된 사물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희망을 갖게 되는 사물들과 융화되고 혼동된다. 소망과 환상은 사실들로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기억된 사실들이 현재의 경험과 지나간 두려움, 미래의 희망에 비추어 끊임없이 변경되

73)濟州人金振龍金萬石者,余之同里閭,而曾於己丑秋,漂沒於海中者也,今於昏倒中,卽見兩人在前,而振龍謂余曰,所着宕巾,何不惠我乎,萬石曰,若以食物餽我,則當爲之執蓋而陪行矣,蓋萬石生時,以執蓋爲役,而振龍生時,爲千惚之任者也. 김봉옥 등은 정병욱이 ‘천홀(千惚)로 읽은 원문은 ‘천총(千摠)’이 맞다고 했다. 천총은 제주해안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올린 진(鎭)에 속한 낮은 무관 벼슬이름이라는 것이다.

74) 장한철은 두 김씨가 등장하는 대목에서 “고향으로부터 만 리나 떨어진 죽음의 문턱에서, 두 김씨가 와서 앞길을 알려 주었다”는 두주를 달아놓았다. 장한철, 김지홍 옮김, 앞의 책, 118쪽.

고 재해석되고 재생된다.⁷⁵⁾

『표해록』의 과거는 단순히 현재의 절망을 잊게 해주는 시간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작품 속 과거는 퇴행의 시간이 아니라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과거는 굳어 있지 않고 현재와 대화하고 있다.

2) 공간의 병치적 구조

공간이란 여러 사물들이 놓여 있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인가, 아니면 사물들 자체가 구현하고 있는 입체적으로 형태화된 모습의 공동된 것인가. 아니면 공간이라는 것은 사물들 속에서는 입체적으로 형태화되어 구현되고, 동시에 사물들 바깥에서는 사물들이 놓여 있고 운동하는 장소로 구현되는 무엇인가. 우주에서 사물들이 다 없어진다면 텅 빈 공간이 남는 것인가, 아니면 공간도 아예 함께 없어지는 것인가. 메를로 폰티는 공간에 대한 고찰에서 공간에 대한 경험을 문제 삼는다. 물리학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취급되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공간이 참다운 공간임을, 그러한 공간이야말로 철학적으로 고찰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천명⁷⁶⁾했다.

타자기의 자판 위치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판을 두드릴 때 더 잘 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의 기어나 브레이크, 핸들 등이 어디에 있고, 지금 자동차가 어떤 무게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운전자의 몸 전체를 통해 몸에 이관되어 들어오고, 아울러 몸의 공간성과 방향성을 그것들에 전이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공간성이 물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스러운(신체적인) 것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메를로 폰티는 우리는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거주한다’거나 혹은 공간‘에’로 향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⁷⁷⁾

메를로 폰티는 거꾸로 보이는 안경 이야기를 통해 공간이 근본적으로 몸으로 사는 데서 성립되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 즉 물리적인 공간도 의식적인 공간도 아닌 제3의 공간임을 말한다.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쓴 실험 초기에는 피험자의 눈에 대상이 뒤집어지고 비실재적으로 보인다. 메를로 폰티는 그 이유를 피험자가 거기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고 거기를 장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촉각적인 물체는 뒤집어 보이지만 풍경은 똑바로 보이는 중간단계가 나타난다. 메를로 폰티는 피험자가 그의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공간

75) 한스 마이어호프, 앞의 책, 38쪽.

76)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324~327쪽.

77) 위의 책, 204~205쪽.

의 기원⁷⁸⁾이라고 했다.

‘표해록’은 바닷바람에 떠밀려 약속되지 않은 땅으로 정처없이 흘러가다, 귀환하는 이야기를 담게 된다. ‘표해록’은 결국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장한철의 『표해록』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잇달아 공간이 등장한다. ‘제주 포구→바다→호산도→안남상선→바다→청산도→바다→제주’로 차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장한철 일행의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다. 메를로 폰티의 공간성을 ‘몸스러운 것’이라고 했을 때, 장한철 일행은 울부짖거나 기쁨에 목 놓아 우는 등 격정적인 감정을 동반한 채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 때문에 몸이 부딪히는 새로운 공간은 동시에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불러오게 된다. 프랑스와 라블레가 활약한 르네상스 시대에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이 역사적 시간과 결합돼 전혀 새로운 유형의 크로노토프를 만들어냈던 것⁷⁹⁾처럼, 장한철과 그 일행이 바닷길을 헤쳐가며 다다르는 제각각 다른 섬의 공간은 시간의 흐름과 맞물려 일상과 일탈, 환상이 공존하는 크로노토프를 만들어낸다.

공간성을 중심으로 『표해록』의 줄거리를 따라가보면, 장한철 일행이 탄 배는 1770년 12월 25일 제주섬을 출발해 표류 끝에 호산도에 도착한다. 배에 실었던 땀감과 물이 떨어져 호산도에서 구조선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적에게 한차례 습격당한 이후 안남 상선에 오르게 된다. 장한철 일행은 무사히 귀향길에 나설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제주목사가 안남세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배에게 쫓겨나 다시 작은 배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돈다. 1771년 1월 6일 이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청산도였다. 마지막 표착지인 청산도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제주로 향한다.

『표해록』의 공간은 섬에서 바다로, 다시 섬으로 이어지며 병치적 구조를 보인다. 섬을 떠나면 다시 섬에 다다르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장한철 일행이 표착하는 곳은 매번 달랐지만 늘 그 섬을 떠나야 하는 처지였다. 장한철이 택한 항해의 최종 목적은 고향 제주로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섬이라는 공간에서 발을 떼어놓지만 이들이 밟 디딜 곳은 결국 섬이라는 점은 제주인과 표류의 긴밀한 관계를 떠올리게 만든다. 병치적 구조를 드러내는 『표해록』 속 공간의 흐름에 한평생 거친 바다와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섬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이 배어나는 것이다.

(1) 제주도

① “우리가 이런 절도(絶島)에 태어났기 때문에, 번번이 서울이 변화하단 말만 들었지 한번 유람할 생각을 평생 염두엔 들 수 있었겠소만 이제 다행히 진사 시험을 보러 가게 되어 나라의 풍물

78) 위의 책, 336쪽.

79) 김옥동, 앞의 책, 217쪽.

을 구경하자던 소원이 풀린 것이 아니겠소... (20쪽)⁸⁰⁾

② 옛날에 탐라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삼을이 처음으로 이 섬에 하강했다. 그러나 아직 배우자가 없었으므로 벽랑국의 임금의 딸 셋으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는 말이 있다.⁸¹⁾(39~40쪽)

③ 탐라사람으로서 그 역⁸²⁾을 피하기란 마치 함정이나 그물을 피하기와 같이 어렵다. 만약 죄를 지었다든지, 벌받을 짓을 했다든지, 교화시키기 곤란한 백성은 반드시 선인으로서 역을 지게하여 사지(死地)에다 버려두므로 모두들 아무래도 죽는다는 마음을 품게 되어 더욱더 방자하게 나쁜 심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⁸³⁾(95쪽)

④ “선생과 같이 표류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없는 것은, 어찌 반드시 그들의 목숨이 선생에 미치지 못해서이겠습니까. 고래를 만나고 파도를 뒤집어쓰고 했으니, 살았다 하더라도 정신을 해치게 되어 거기에서 질병이 따라 생겨 하늘로부터 받은 목숨을 다 누리지 못했으니 참으로 슬프고 가엾은 일입니다.”⁸⁴⁾(128~129쪽)

제주는 표류의 운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섬이다. 표류를 통해 제주사람들은 만남과 이별을 맞본다.

제주사람들의 탄생은 표류에 기원을 두고 있다. ②에서는 ‘하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고문헌에는 어느날 삼을나가 동쪽 바닷가에 떠 있는 목함을 건졌는데 그 안에서 푸른 옷을 입은 세 여인과 망아지, 송아지, 오곡의 종자가 나왔다는 대목⁸⁵⁾이 나온다. 신화에 따르면 결국 바닷길로 떠밀려온(표류) 세 여인이 삼을나와 만남으로써 제주는 사람 사는 땅이 됐다.

그런데 ①에서처럼 물과 한참 떨어진 제주는 세속의 세찬 흐름을 비껴가는 곳이다. 변화한 세상과는 거리가 먼 채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물에 올라 서울 구경하는 게 제주 선비들의 소원 중 하나였다. 이런 섬에서 제주의 뱃사람들은 물에 있는 땅에 뼈를 묻는 일이 드물었다. 아침에 배 한 척이 표류해 뱃사람들이 모두 죽으면, 저녁에 또 다시 배 한 척이 가라앉아 뱃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식이다. 그러니 제주사람들은 ③의 인용문처럼 뱃일을 피한다. ④는 표류하고 살아 돌아오더라도 정신적 피폐함을 견디지 못하고 머잖아 죽음과 맞닥뜨리는 제주사람들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 호산도⁸⁶⁾

80) 吾輩生在絕域,每聞京都之繁華,而一遭遊覽,幸今槐黃之行在即,觀國之願將伸.

81) 在昔耽羅無人物,三乙始降,未有配耦,璧浪王,妻之以三女云.

82) 선인(船人)을 말한다.

83) 而耽羅之人,避其役,如避穿罟,若有作罪犯科,難化之民,則必付役於船人,置諸死地,故皆懷必死之心,益肆不仁之術.

84) 與子同漂者,今其人十無二三,豈必其壽之不及子,出沒鯨濤,戕生損神,疾病垂之,未究天賦之命,良足悲差.

85) 『고려사』 권 57지 제11지리 2, 나주목 탐라현조, 국립제주박물관, 『항해와 표류의 역사』, 서울판사, 2003, 28쪽에서 재인용.

86) 호산도가 지금의 어느 섬을 지칭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퍼낸

또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기 1리를 지났을 때, 시냇가 숲 사이에 한 쌍의 굴나무가 있는데 초록빛 잎사귀는 그늘을 짓고 있으며, 붉은 열매가 사이사이 비쳐 보인다. 못사람이 손을 부지런히 눌러 따서 싫증이 나도록 먹고는 그 나머지를 싸서 돌아왔다. 다시 시냇물을 쫓아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니, 시냇물은 끝나고 포구를 이룬다.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전복을 따다. 모두 20여개⁸⁷⁾ 된다.⁸⁸⁾ (53쪽)

표류한 지 3일 만에 도착한 첫 표착지 호산도는 『표해록』에서 가장 별스러운 공간이다. 장한철도 “생각건대 이 만리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별다른 차림으로 살아가는 도리가 있으니, 그 어찌 기행이 아니리오.⁸⁹⁾”(54쪽)라고 썼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묘사된 섬(장한철 일행은 훗날 안남 사람을 통해 그 섬이 유구 지방의 호산도라는 것을 알았다)은 제주사람들의 이상향⁹⁰⁾에 가까워 보인다. 섬에는 푸른빛과 초록빛을 내뿜는 나무가 무성하고 팔뚝만한 뿌리가 달린 산약이 곳곳에 있다. 제주도의 굴 같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갯가에 는 지름이 네댓 치가 되는 전복이 아주 많다.

둘레가 10여 리 되는 호산도는 산에서 나는 것이나 해산물이 살아가기에 풍족하다. 비옥한 토지와 큰 들판 등 경작 조건도 좋다. 제주도의 환경과 흡사하되 배움의 일이 없을 것 같은 섬이다.

낙원 같은 그 곳 호산도에서 장한철 일행은 축제⁹¹⁾를 경험한다. 존귀와 비속을 허물고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 만 리나 떨어진 먼 해역에서 맞이하는 새해 첫 날 아침, 웃놀이를 한 뒤 진 사람이 발가벗은 채 서로 절을 하며 모처럼 웃는다.

『표해록』속 장한철은 뱃사람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몇 차례 드러낸다. 이는 뱃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선비 장한철의 한계일 수도 있다. 초반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뱃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평생 글공부를 해온 장한철을 믿지 못하고, 장한철은 뱃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식이다.

하지만 호산도에서 이같은 갈등은 잠시 무너지는 듯했다. 다성적 문학의 뿌리

국역 『오키나와의 문화』(1992)에 따르면 옛 유구 지방인 오늘날의 오키나와현에 흩어진 160개 섬 가운데 유인도는 40개 뿐이고 나머지는 무인도다. 『표해록』에 기록된 대로라면 호산도는 100개가 넘는 오키나와현의 무인도중 하나일 것이다.

87) 200여개의 오기이다.

88) 又緣溪而上,行過一里,溪邊林間,有雙橋樹,綠葉成陰,朱實交映矣,諸人亂手爭摘,噉之已饜,包其餘而歸,又遵溪而下,放于海,則溪盡而爲浦口矣,諸人入水,採腹得二百餘箇.

89) 顧此萬里風浪之中,有此別般生理,不亦寄幸乎.

90) 흔히 제주사람의 이상향으로 거론되는 이어도,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벽랑국은 동해의 이상향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도 ‘니라이카나이’라는 동해의 이상향이 있는데, 쌀이나 불처럼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귀중품이 온 곳이고, 사람이 죽어도 간다는 섬이다. 제주섬을 통치하던 호족들은 고인돌에 의해 매장되었지만, 동해바다에 그들의 이상향이 있고, 사람이 죽어서 바다에 수장하면 동해의 이상향으로 간다는 신앙이 고대로부터 이어져오며 이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162~163쪽.

91) 축제(카니발)는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에 등장하는 용어다. 바흐친에 따르면 축제는 고급문화를 뒤집음으로써 아래서 본 대중적 이상향이요 신나는 비판의 장이다. 축제 안에서 모든 사회적 권위, 특권, 규범, 금기 사항이 무너진다. 여흥상, 앞의 책, 120~121쪽.

중 하나인 카니발은 본질적으로 형식과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분방하고 파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카니발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 지위나 나이 혹은 재산에 의해 구분되는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자유롭고 친근한 접촉이 생겨난다. 반상의 구분이 엄격한 것으로 그려지는 『표해록』에서 단 몇 줄로 언급된 이 장면은 작품에 담긴 개방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장한철은 호산도에서 시를 읊으며 이리저리 거니는 등 제주를 떠난 이후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장한철은 이런 섬에 사람이 살지 않은 이유가 궁극하다며 해적이 자주 나타나 사람이 붙어살지 않는 모양이라고 짐작한다. 그의 말대로 장한철 일행은 해적에게 옷가지는 물론 그동안 섬에서 캐낸 식량을 모두 빼앗기는 처지가 된다.

해적의 등장은 장한철 일행이 머물고 있는 곳이 실제적인 공간임을 일깨운다. 섬 가운데 세 봉우리가 아름다움을 다투고 산과 바다에서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는 낙원 같은 무인도는 지나간 표류의 여정에서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기 때문이다. 호산도는 한편으로 험난한 앞날과 대비되며 바다에 던져진 인간들의 나약함을 상징하는 듯한 표류의 또 다른 공간이다.

(3) 청산도

울부짖으며 죽음을 기다리던 일행들 앞에 나타난 청산도는 장한철 일행의 마지막 표착지이면서 『표해록』의 극적인 장면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청산도에 표착하는 순간에 이르러 비로소 독자들은 표류가 제주사람들에게 안기는 크나고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큰 물결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치고, 회오리바람은 바다를 체질하듯 까불어대는 바닷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산도에 표착하는 동안 29명 중 21명은 저 세상으로 갔다. 한 배에 탔던 제주상인 15명 대부분이 죽었고, 노잡이 9명도 1명을 빼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장한철 일행이 실제로 밧을 디딘 섬은 세 군데이지만 『표해록』에는 여러 섬이 거명된다. 청산도처럼 실제 존재하는 섬도 있지만 전설 속의 섬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주의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대마도는 한라산의 동북에 있고, 일기도는 정동에 있으며, 여인국은 동남에 있다. 한라산의 정남에는 크고 작은 유구의 섬들이 있다. 가장 먼 곳인 동해에는 벽랑국이 있다. 일기도의 동남에는 거인도가 있다. 거인도는 인적이 드물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표해록』에는 기사년(1029년) 제주사람 정일 등이 표류하다 거인도에 도착한 적이 있는데, 그곳 섬사람들에게 붙잡혔다는 내용이 나온다. 거인도에서 도망 나와 살아남은 자는 겨우 7명이었다는 걸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그 섬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한철이 표착 예정지로 떠올렸던 나인국(裸人國), 흑치(黑齒)란 종족이 사는 곳 역시 고립무원의 성격을 띠는 섬일

수 있다.

크로노토프는 다양성과 다중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연한 기준이 된다. 한 편의 소설 속에는 다양한 크로노토프들이 들어 있어서 여러 사건들을 재현할 수 있으며, 또 각각의 크로노토프는 이중적, 다중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⁹²⁾

해양문학적 성격 등을 지니는 『표해록』 속 섬은 과거와 현재가 겹겹을 이룬 시간의 그것처럼 공간 역시 이중적 속성을 띤다. 섬은 벗어나야만 하는 공간이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배를 대야만 하는 공간이다.

장한철에게 섬은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드는 공간이다. 장한철이 맨 처음 닻을 올려 제주를 떠나기로 결심한 데는 과거를 치르는 일과 더불어 ‘집을 지키는 앓은뱅이 신세’를 벗어나려는 심사가 작용했다. 절해고도에서 태어난 탓에 서울이 변화하다는 말만 들었지 제대로 구경을 못했던 장한철은 친구 김서일을 설득해 서울로 향한다. 호산도, 청산도에서의 행동 역시 다르지 않다. 호산도는 산해진미가 나오는 섬이지만 이동 수단인 배에 이상이 생긴 장한철 일행은 그곳을 벗어나려 한다. 청산도는 장한철이 여인과 하룻밤을 보낸 추억 어린 섬이고, 말이 통하는 섬사람들의 온정으로 표류의 고통을 잊게 만든 섬이지만 수개월간 바다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낸 살아남은 자들에겐 고향 제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섬은 장한철 일행이 애타게 다다르고 싶었던 공간이다. 날뛰는 바다에서 한시라도 탈출해 땅에 발을 딛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섬은 탈출구였다. ‘사방을 둘러보아야 푸르디푸른 과도 뿐 한 점 섬도 없는’ 바다에서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육지는 표류인들에게 생명수였다. 섬에 도착한 이후 무슨 일이 그들앞에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시급한 일은 또 다른 섬(육지)과의 조우였다.

제주도를 출발해 호산도→청산도→제주도로 이어지는 『표해록』의 순차적 여정은 일상의 크로노토프이면서 일탈의 크로노토프를 그려낸다. 과거를 보러, 장사를 하러 배에 오른 장한철 일행은 호산도로, 청산도로 예측 못한 여정에서 일탈을 맞본다.

그러면서도 섬은 결국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곳이다. 표류 직후 장한철이 여러 지도에 있는 책을 훑어보면서 거인도를 언급하는데, 이 대목에서 살아남는 자는 7명이었다. 장한철 일행 역시 살아남아 먼저 제주로 향한 이가 7명(장한철은 서울로 향했다가 귀향함)이다. 기사년과 경인년, 거인도와 청산도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사건이 순환되는 듯하다. 이를 통해 제주 뱃사람들은 끝내 바다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4) 바다

92) 김정아, 앞의 글, 14쪽.

제주도→호산도→청산도로 이어지는『표해록』속 공간의 흐름에서 이들 섬을 아우르는 것은 결국 바다다. 『표해록』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다가 있기에 가능했다. ‘나’는 『표해록』에서 수시로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 넣는다.

① 바다란 것은 그 크기가 길이 없을 정도여서 하늘과 땅이 삼키듯 싸고 있고, 해와 달을 거꾸로 세우며 주에천허(朱崖天墟)로써 남북의 애안(涯岸)으로 삼고, 석목(析木)·유사(流砂)⁹³로써 동서의 주저(洲渚)로 삼고 있다. 나로 하여금 만약 장건(張騫)의 뗏목만 얻게 한다면, 그것으로 가히 강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은하에 도달할 수 있겠고, 만약 산옹(山翁)의 일을 얻어 탄다면 가히 만 리를 눈 깜짝할 새 달려 고향에 닿을 수 있겠으나 어찌 그런 이치가 있으리오. 어찌 그런 술책이 있으리오. 오직 꼼짝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⁹⁴(40~41쪽)

② 바닷물은 밀물 때가 되면 해안쪽으로 물이 밀려와서 가득 차게 되고, 썰물 때는 물이 빠져 줄어들므로 석서가 밀물·썰물에 따라 잠겼다 드러났다 할 것은 이치에 꼭 맞는 말이다. 저녁 때가 되어 썰물이 빠지고 나서 가보니, 과연 석서가 보인다. 그 길이는 100걸음 남짓한데, 육지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어 바닷속에 한 가닥 돌길을 이루고 있다. 그곳을 보니 눈앞이 아찔해지며 놀란 혼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다.⁹⁵(105~106쪽)

③ 내가 바다에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다와 하늘이 서로 굽틀거리는데,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바닷고기의 소름 끼치는 소리뿐이었소. 성난 물결은 부딪혀 으르렁대고, 개다가 벼락은 치고, 해안에선 도적들이 내 혼을 빼앗고, 배 가운데서는 적이 원수를 갚으려고 칼날을 갈고 있었으니, 이는 여량에서 얇은 얼음을 밟고 건너며 살기를 구하고, 태행(太行)에서 마차의 멍에를 타고 말을 몰아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소. 이렇게 이미 고경(苦境)을 겪었으니, 오늘의 낙을 말할 수 없는 것이오.⁹⁶(130쪽)

‘나’에게 바다는 ‘야만인이 사는 바다’다. ①~③에서 나타난 바다는 한결같이 공포의 대상이다. ①에서는 표류에 처한 현실을 깨닫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안감을 담고 있다. 바다는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른다. ‘나’는 길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그 바다에서 한없이 작아진 채 자연 안에서 거친 바람이 사라지고 순풍과 태양이 순환되길 바랄 뿐이다. ②에서처럼 가깝게 보이는 바다의 모습 역시 공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장한철은 청산도에 표착하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안지경을 보고 있자니 그만 아찔해진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바닷속 돌길은 어찌나 험난한지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게 고역이었다. 바다는 사람들의 눈앞에 위협을 쉽게 내보이지 않지만 늘 죽음의 공포를 안고 있는

93) 이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석목·유사(발해 동쪽 땅 및 모래가 흐르는 고비사막)는 동쪽과 서쪽의 끝 지점을 가리킨다. 장한철, 김지홍 옮김, 앞의 책, 57쪽.

94) 海之爲物, 其鉅無外, 吞包天地, 顛倒日月, 以朱崖天墟, 爲南北之涯岸, 析木流沙, 爲東西之洲渚, 使我而若得張騫之槎, 則可以泝河源而達天漢, 若泛山翁之葉, 則可以瞬萬里, 而到家山矣, 豈有是理, 豈有是術, 惟當束手待死而已.

95) 蓋海水, 潮至而盈, 汐退而縮, 故嶼之隨潮汐而隱現, 理固然矣, 及暮汐退, 而嶼果見, 乃百餘步, 石嶼連陸而入海, 作一條石逕, 於海中者也, 觸目危凜驚魂, 尚悸矣.

96) 余之在海也, 目之於色, 水天相盪, 魚龍怖余, 耳之於聲, 駭浪鬪激, 中作霹靂, 岸上之寇[虎山遇倭], 奪我魂, 舟中之敵[安南舟人], 觸其鋒, 是履簿乎呂梁而求其活, 騎衡乎太行而希其全也, 此是已經之苦境, 而請言今日之樂.

곳이다. 그런 바다를 무사히 헤쳐 온 장한철은 ③에서처럼 바다를 향해 다시 눈길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물고기 소리에 소름이 돋고 성난 물결은 배 위의 사람들을 언제나 덮칠 태세를 하고 있다. ①과 ②의 바다가 시각의 바다라면 ③은 청각과 촉각의 바다다.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바다는 어느 것 하나 안온함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바다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섬 사람들은 해양친화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해록』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만 하더라도 사공이나 뱃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상인들은 새로운 물자를 공급받는 통로다. 바다를 통해 섬과 육지를 이으며 상업적 활동을 이어간다. 장한철과 같은 선비에게 바다는 열린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길이다. 바다를 건너는 일은 곧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모두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표해록』에서 바다에 대한 인식은 두려움과 공포에 집중되어 있다. ‘바다’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인식은 두려움 자체를 그려내기보다는 죽음의 공포 앞에 비로소 진면목이 나타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같은 체험의 사실적 진술은 해양 공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화시켜서 전달한다는 의미와 함께, 죽음의 공포를 통하여 삶의 소중함 그리고 나약하지만 위대한 인간의 진면목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술⁹⁷⁾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표해록』의 시공간은 하나의 성질로 모아지지 않는다. 물리적 시간의 그것처럼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지만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공간으로 흘러간다. 장한철 일행이 탄 배는 나아감을 뜻하는 항해에 나서지만 이때의 항해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의 성격을 지닌다. 정처없이 떠도는 표류가 정착지를 찾지 못하는 한 항해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표해록』에서 두드러진 공간인 바다 역시 장한철 일행에게는 언제, 어느 섬으로 데려다 줄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바다에서 섬(물)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시공간이 서로 묶이기보다 자꾸만 일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탈의 과정으로 바뀌어간다.

2. 주체의 언술 유형

바흐친의 다성성 이론에 따르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단일한 스타일이나 어조로 종속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의 독립성과 독자

97) 옥태권, 『해양소설의 이해』, 전망, 2006, 99쪽.

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그의 작품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단일하게 통제되지 않고 제각기 고유한 존재 이유를 지닌 채 작가의 목소리와 나란히 경쟁⁹⁸⁾한다.

다른 사람들이 단일한 생각을 보는 곳에서, 그는 생각이 둘로 분기되어 있음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단일한 성질을 보는 곳에서, 그는 두 번째 성질 혹은 모순적인 성질을 발견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단순해 보이는 모든 것이 복합적인 것으로, 다층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된다. 그는 모든 목소리 속에서 두 가지 경쟁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모든 표현 속에서 균열은 물론이거니와 즉시 또 다른 모순적 표현으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았으며, 모든 동작에서 신뢰와 신뢰의 결핍을 동시에 탐색해냈다. 그는 모든 현상의 심오한 모호성을, 심지어 복합적 모호성을 지각했던 것이다.⁹⁹⁾

즉, 다성적 문학은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러 작중인물들이 저마다의 목소리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작가의 목소리와 의식도 다만 이러한 여러 목소리와 의식과의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의 다성성은 이야기 층위가 아닌 이야기를 전달하는 담론의 층위에서 발생한다.¹⁰⁰⁾ 이는 여러 목소리나 의식들이 작가의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엄격히 통제되고,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성적 문학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장한철 『표해록』은 1인칭 시점으로 줄곧 써내려간 작품이지만 언어의 대화적 관계가 일어난다. ‘나’는 『표해록』 속 다른 인물들처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자연의 힘 앞에 의연한 듯한 이중적 목소리를 내뱉기 때문이다.

바흐친에 따르면 언어의 대화적 관계는 예술의 주체인 작가에 대한 반응, 즉 예술과 예술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의 한 부분이나 개별적인 단어, 언어 스타일이나 사회적 방언 사이에서도 생겨난다. 또한 어느 한 개인에서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그것은 예술 전체나 예술의 한 부분 혹은 어느 한 단어에서 일어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화적 관계는 기호적인 모든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¹⁰¹⁾

『표해록』에는 ‘나’의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나타난다. 감추어진 목소리와 밖으로 드러난 목소리가 있다. 이같은 ‘나’의 목소리가 안과 밖을 이루며 한 몸을 만든다. ‘나’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갈등하는 여러 양상이 표출된 것이다. ‘나’는 목소리를 감추고 드러내면서 표류에 처한 인간의 불확정성을 확장한다. 다성성을 지닌 작품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제각각 고유한 존재 이유를 갖는다. 『표해록』에

98) 김옥동, 앞의 책, 193~194쪽.

99) Caryl Emerso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Minneapolis Univ Press, 1984, 30쪽., 케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앞의 책 453쪽에서 재인용.

100) 김영란, 「서정인의 『달궁』에 나타난 다성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5쪽.

101) 김옥동, 앞의 책, 189~190쪽

서 다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생존에 대한 갈구와 연관이 깊다.

장한철은 뱃사공, 상인 등 여러 군상이 동승한 배에서 선장 노릇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일행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같은 언술은 크게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내포적 언술이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언술이라면, 대화체 형식의 외연적 언술은 과장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언술에 해당된다. 이들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은 나란히 경쟁하며 위기의 순간을 헤쳐 가는 기능을 맡는다. 이는 결국 장한철이 하나의 성향으로 귀결되기 어려운 인물 유형임을 드러내며 작품의 다성성을 배가시킨다.

1) ‘나’의 내포적 언술

『표해록』은 제주를 출발한 직후 노어도 근해에서 조난당하는 무렵부터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이 교대로 등장한다. 거짓말을 해서 뱃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다.¹⁰²⁾

밤은 이미 캄캄하여 동서를 분별할 수가 없는데 바람은 까불어대고 비는 마구 퍼붓고 배는 풍랑에 들볶인다. 배 밑으로는 사정없이 물이 새어들고, 배 위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다. 배 안에 고인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게 되어 물에 빠져죽을 재화가 시각을 다투는데, 뱃사람들은 배에 고인 물을 퍼내려 하지 않는다. 애써 퍼내보아야 별수없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꼼짝도 않고 자빠져 있을 뿐이다. 물을 퍼내라고 명령하고 싶으나 내 명령에 따를 리가 없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본 끝에 뱃사람들의 마음을 찌어보리라 작정하고 배 안에다 대고 큰 소리로.

“동풍이 몹시 급히 부니 배도 나는 듯이 흘러간다. 홀에 천리를 간다 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¹⁰³⁾(27쪽)

노어도 근해에서 사나운 바람과 성난 파도로 배가 솟았다 갈아앉았다 하며 배 밑으로 물이 사정없이 밀려들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는다. 애써 퍼내보아야 별 수 없이 죽으리라고 자포자기했기 때문이다. 장한철은 물은 퍼내라고 명령해도 따를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뱃사람들의 마음을 찌어보는 말을 꺼낸다. 배의 속도가 나는 듯이 빠르니 내일 아침이면 외연도에 다다를 것이라고 둘러댄다.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 흘러다니는 배가 어찌 외연도에 반드시 도달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요. 게다가 뱃줄도 샷대도 다 잃어버린 데다 기울어 엎어질 염려까지 있는데, 어찌 만 리나 되는 먼 바다를 건너 중국의 해안에 머무를 수 있으리요. 뱃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나에게 속아 배

102) 장한철은 필사본 ‘두주’에서 ‘속여 말하지 않고서는 다른 도리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여 놓았다. 거짓 피를 내어 속여 말했다는 표현(詭計)은 두주에 모두 네 번 나온다. 장한철, 김지홍 옮김, 앞의 책, 40쪽.

103) 頃之夜色昏黑, 不辨東西, 風簸雨注, 孤蓬出沒, 自舟底而水多漏入, 自船上而雨如翻盆, 船中水深已沒半腰, 淪溺之患, 迫在時刻, 而舟人皆堅臥不起, 無意卸水者, 知其終, 亦必亡矣, 欲命之卸水而無從命之理, 故默思所以誘其衷, 而乃大言于舟中曰, 東風甚急, 漂船如飛, 一日千里, 非此之謂耶.

에서 할 일을 명령만 하면 곧 따르니, 이는 참 다행한 일이다.¹⁰⁴(29쪽)

외연도의 위치 등을 그럴 듯하게 설명하면서도 ‘나’는 선인(先人)들이 쓴 야화에서 얻어들은 이야기인데 신빙성이 있겠느냐며 자포자기한다. 장한철도 내심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바닷길을 헤매는 배 안에 갇힌 처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달래줄 순 없었다.

이튿날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장한철은 외연도에 도착한다는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여겨 군중의 마음을 위로하려 유구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장한철은 억지로 기쁜 얼굴빛을 하고 애써 농담을 하기도 한다.

배에서는 이야기가 죄다 삼시간에 즐거워하는 가운데 터져 나왔다. 내가 억지로 기쁜 얼굴빛을 짓고, 굳이 희담(戲談)을 하려 함은 군중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서북풍이 세계 분다. 다시 배는 미끄러지듯 달린다. 모두들 반드시 유구로 가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유구는 산수가 아름답다는 등, 물품과 재화가 풍부하다는 등, 이야깃거리를 자꾸 만들어냈다. 그랬더니 모두들 기뻐하며 몇 번이나 유구에 내왕하였기에 그렇게도 용하게 유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사랑할 수 있느냐고들 말한다.¹⁰⁵(33쪽)

김서일은 그런 그에게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함은 사람의 상정이라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는 데 홀로 근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는데 홀로 울지 않고 오히려 뱃사람들을 호령하며 기색이 양양”¹⁰⁶(34쪽)하다고 꾸짖는다. 장한철은 그 말에 “그대는 내 마음을 몰라. 언제 몰래 내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날이 있을 걸세”¹⁰⁷(35쪽)라고 답한다. 장한철이 난처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배안에 있는 여러 사람을 위로해 죽을 힘을 다해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침수를 막아 배를 구하려는 ‘나’의 내포적 언술은 계속된다.

나는 사공에게 지남철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불을 비취주게 하고는 다시 풍세를 살피도록 했다. 그러니까 사공이 바람의 방향을 짐쳐 보더니 대답한다.

“이는 바로 서풍입니다. 아마 유구에 가 닿는 것은 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짐짓 크게 기쁜 듯이,

“그렇다면 여인국이나 일기도에 닿게 될 테지”

하니, 선원들도 역시 나를 따라 즐거워하였다. 무릇 내가 백 가지 수단으로 피어 스스로 위안이

104)然而隨風漂流之船,安知其必泊於外煙乎,且惟楫盡失,傾覆可慮,安得以涉萬里之海,泊中土之岸乎,舟人皆愚駿,見欺於余,船上執役,惟命是從是,則可幸也.

105)舟中說話,皆出於霎時乘喜,而余之強作喜顏,務爲戲談者,欲使群心,賴以爲安也已,而西北風緊吹,船往甚疾,衆皆以琉球爲必往之地,余以琉球,山水之勝,物貨之富,叙作話本,豐豐不已,衆皆喜曰,幾度來往於琉球,而諳得琉球事,如是之詳耶.

106)好生惡死,人之常情也,人皆憂而獨不憂,人皆哭而獨不哭,猶欲號令舟人,氣色揚揚.

107)君不知我心,自有穩叙心事之日矣. 김봉옥 등은 정병욱이 소개한 원문의 ‘숨길 은(隱)’은 ‘편안할 은(穩)’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되도록 한 까닭은, 선원들로 하여금 전력을 다하여 침수를 막아 배를 구해보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못사람이 울고불고하는 물결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타도록 애쓰며 온 정신과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속아 살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¹⁰⁸⁾(42~43쪽)

바람의 방향이 다시 바뀌어 배가 유구쪽으로 향하지 않음을 뱃사람들이 눈치 채기에 앞서 장한철은 제주목사가 유구 세자를 죽인 사건을 거론하며 유구행의 위험을 노출시킨다. 뱃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돌려놓으려는 뜻에서다. 유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뱃사람들의 상실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구 지경으로 바람이 불어대자 장한철은 일행들에게 제주사람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다며 호패를 모두 바닷속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한다.

청산도에 표착하기 직전 배가 난파되는 상황에서는 짐짓 점을 쳐본 것처럼 해시(亥時)에 살 길이 있을 것이라며 뱃사람을 안심시킨다.

“키에 달린 나무가 험껏 부딪히니 선관이 부서져 꺾일 것은 당연하다. 이제 보니 배의 밑바닥 널판은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다. 이는 하늘이 우리를 살리려는 거다. 너희들은 놀라 겁내지 말고 부지런히 물을 퍼내기나 해라”

타이르고, 이어서 나는 짐짓 점을 쳐 본 것처럼 하고는,

“해시에 응당 살길이 있으려니 걱정말라. 걱정할 것 없다”

하고 용기를 북돋우기도 했다. 이러니 뱃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모두 내 명령을 좇아 일을 한다.¹⁰⁹⁾(87쪽)

거짓피를 내고 위로의 말이 늘어날수록 장한철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겉으로 태연한 척 했지만 “가슴은 짝 막히고 흉격은 번조하여 자주 물을 찾아 마셨다. 드디어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기 까지 이르렀다.”¹¹⁰⁾(43쪽) 목숨을 바다에 내놓아야 하는 환경과 맞닥뜨려 ‘나’ 안의 또 다른 ‘나’는 희망의 지표를 찾아 나서려 이중적 목소리를 설새 없이 쏟아냈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 바다에서 만난 이상한 물세의 동작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한철의 행동은 내포적 연술과 외연적 연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지은이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배는 바람을 따라가고 있을 뿐,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날이 저물어지려 하는데, 갑자가 이상한 새가 울며 날아 지나간다. 표류한 뒤로는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고 머리를 들어

108) 余授沙工指南鐵，使之照火，更觀風勢，則沙工占風而答曰，此乃四風也，似可避琉球也，余佯若太喜曰，然則女人一岐，可泊矣，衆亦隨余而喜焉，蓋余所以百道誘引，使自慰安者，欲使舟人，宜力於卸水救船，而亦不欲見，衆人哭泣之景色也，其爲苦心焦思，殫盡心力，則非衆人之所知也，衆人則見欺於余，而知有可生之路，故不甚用心。

109) 鷗木之衝擊，勢必船板之破圻，而目今船之下板，幸不破圻，是天欲活我也，願汝輩勿生驚怯之心，惟勤卸之役，仍佯若作占而言曰，亥時，當有生道，勿慮勿慮，於是乎，舟人喜聞此言，皆從命執役矣。

110) 而心地抑塞，胸膈煩燥，頻索水飲，以至眼花，赤如血。

보아야 보이는 것은 하늘 뿐이요, 바다는 가이 없이 멀고 넓다. 이따금 크나큰 물고기가 물결을 쳐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빨, 눈이 두렵기까지 했다. 이제 홀연 새소리를 듣게 되니 뱃사람들이 모두 기꺼워한다. 내 마음도 역시 늦추어져 비로소 이승에서 살 뜻을 지니게끔 되었다.¹¹¹⁾(43~44쪽)

바다라는 공간에는 큰 물고기와 물새가 함께 산다. ‘나’의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은 바다가 둘이 갈등하고 행동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물새를 통해 표류 끝에 안정적 기착지가 있음을, 큰 물고기를 통해 섬을 떠난 곳에 풍랑의 바다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물새만으로 바다의 성질을 알 수 없다. 큰 물고기 역시 그것 하나로 바다가 어떤 곳인지 해명하기 어렵다. 나의 뒤통수가 어떤 모습인지 알기 위해선 타자의 시선을 빌려야 한다. 타자의 도움을 얻어야 비로소 나의 전체적 윤곽을 알 수 있다. 그것처럼 바다 역시 물새와 큰 물고기의 시선이 상호침투되었을 때 평온하면서도 위험한 성격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를 통해 표류 이후 ‘나’의 목소리가 균열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애초부터 ‘나’의 시선은 미끄러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표류의 바다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탓이다. ‘나’의 외연적 언술을 신뢰하는 이는 뱃사람들이다. 그들은 순순히 ‘나’의 명령에 따른다. ‘나’는 물론 외연적 언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나’의 내포적 언술은 자꾸만 불안을 결눈질한다. 내포적 언술의 바탕에 외연적 언술이 뒤따른 것이지만 그것의 결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귀향 이후 어느 표류인의 무덤 앞에서 ‘나’가 객(客)과 나누는 대화는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폭풍 쳤던 바다를 무사히 건너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제 인생을 관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몸이 거처하는 곳이 편안한 집안이며, 발을 내디디며 걸을 수 있는 곳도 평탄한 길과 잔잔한 시내이며, 풍운과 달밤의 이슬 머금은 풍경을 눈으로 보며 그 모습을 기뻐하며, 쇠 돌 실 대로 만든 약기의 소리를 귀로 들으며 그 소리를 즐길 수 있으니, 춥고 배고픔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이지만 바다위에 떠있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배부르고 따뜻하다 할 것이요. 질병은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는 바지만 바다 위에 있는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강녕한 셈이지요. 내가 바다 위에 있던 때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물건이라도 나를 즐겁게 하지 않을 것이 없으며, 어떤 일이라도 나를 즐겁게 하지 않을 것이 없소. …내가 바다를 표류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험을 당하였소. 그러다가 문득 찾아온 지극한 즐거움은 삶을 얻는 데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득실에 급급하고, 화복에만 마음을 쓰고 근심할 것임은 내 이야기를 듣고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 양생에 있어서는 내 말이 아마 옳을 것이오.”

객은 일어나 절하며 사죄하고,

“내가 듣기로는 물은 어떤 변화를 받아야 훌륭한 재목이 되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슬기롭

111) 船猶隨風而去,不知其所屆也,日將夕,忽有異禽飛鳴而過,漂流後,塵界迥隔,舉頭但見,天在上,而海無邊,或見大魚鼓浪,牙眼可怖,今忽聞,禽鳥之音,舟人皆喜,我心亦降,始有陽界生意.

고 사리에 밝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바로 선생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까.”
한다.¹¹²⁾(130~131쪽)

『표해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날짜인 1771년 5월 8일의 기록은 대화체로 이루어졌다. 그 이전 기록과는 다른 양상이다. 표류에서 살아남은 사연을 들은 객이 ‘나’에게 표류의 고통을 담담히 견디고 살아 들은 있는 방도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나’는 객에게 답하는 방식으로 고 살아 얼마만한 고통을 겪었는지, 쓸모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서술해나갔다.

“대저 사물에 통달한 사람은 복에 의지함은 아나 기뻐하진 않으며, 한편 화를 감출 줄 알고 이를 근심하지 않으며, 또 무엇을 얻는다 해서 마음이 들뜨도록 좋아하는 법이 없고, 잃는다 해서 마음이 상하도록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없지요. 이렇게 되면 마음은 만화(萬化)와 더불어 의당 화합하고, 정신은 조물(造物)과 더불어 나란히 노닐 게 되는데, 아아, 이러한 사람이 없으니 나는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야 되오.”¹¹³⁾(132쪽)

장한철이 터득한 생각은 단지 ‘죽을 데에서 벗어나서 좋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왜 좋은지에 대한 탐구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할 만하다. 상대적인 시각에까지 그 폭을 확장한 것이다. 죽을 데에서 벗어나 지금 살아있다는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인간사의 모든 면을 상대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는 데까지 사유의 폭을 넓혀나갔다.¹¹⁴⁾

다성성이 드러나는 문학작품 속 언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자와 대화하면서 쉽없이 변화해 간다. 이때의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자신의 말을 주고받는 외적인 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억양이나 어조, 말투 등 유형화하기 어려운 비언어적 자질인 언표를 통한 교환도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나’의 내포적 언술은 설득→체념→달관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이야기를 꾸며내 동요하는 뱃사람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려 했지만 배가 부서지고 청산도에 표착할 무렵에는 그럴 힘조차 사라진 채 체념하는 모습을 보인다. 살아돌아온 이후에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달관이 엿보인다.

112)身之所處,枕席室廬,足之所躡,坦路安流,風雲月露,與目謀,而其能可悅,金石絲竹,與耳謀,而其聲可樂,饑寒人之所憂,而此諸在海,則飽煖也,疾病人之所苦,而此諸在海,則康寧也,使我而斯須不忘,在海時,則天地之間,無一物而非吾樂,無一事而非吾樂…吾之漂海,至苦至危也,而抑至樂之所由生也,使世之汲汲於得喪,戚戚於禍福者,得吾說而存之,其於養生可庶幾焉,客起拜而謝曰,吾聞,物受變而材成,人經難而智明,非子之謂耶.

113)夫達人者,知福之倚而不喜福,知禍之伏而不憂禍,得之不爲盈,失之不爲損,心與萬化而冥合,神與造物而並遊,噫,徵斯人,吾誰與歸.

114) 장시광, 앞의 책, 191쪽.

2) ‘나’의 외연적 언술

앞서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은 한 몸을 지녔다고 했다. 더욱이 ‘나’의 목소리에서 그것들은 뒤섞여 드러나기도 한다. 장한철 『표해록』에는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나타난다. 내포적 언술을 외연적 언술 앞이나 뒤로 배치해 발화 배경을 바로 제시하는 셈이다. 내포적 언술과 동시에 드러나는 외연적 언술은 다음과 같다.

① “내가 일찍 지도를 볼 때, 서해에 외연도가 있었는데 동쪽 소안도와와의 거리는 1300리가 된다더라. 이 배가 동풍을 만난 것이 소안도의 서쪽에서이니 서해로 똑바로 향한다면, 배의 속도가 나는 듯 빠르니 내가 생각하긴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외연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 섬은 탐라가 원나라에 조공할 때 수역을 설치했던 곳이다. 우리들에게 모름지기 살아날 길이 있는데 어찌 하늘인들 돕지 않을소냐. 더욱이 이 배는 새로 만들어 튼튼하니 아무 근심이 없다”고 외쳤다.¹¹⁵⁾(28쪽)

② 나는 혼자 이제 와선 외연도에 가 닿게 되리란 이야기로는 군중의 마음을 끌 수 없으리란 것을 몰래 걱정하고 있었다. 또 겨울 날씨가 화창하면 반드시 서북풍이 일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곧 군중을 향하여,

“오늘 만일 서북풍만 불어주면, 오늘밤은 어김없이 유구의 부엌에서 밥을 끓여먹을 수 있을 거야”하고 말했다.…(생략) 야화에 적혀 있기는 백해·흑해·적해를 다 건너고 나면 비로소 유구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 거리는 멀어서 몇천 리인지 알 수 없다 했는데 내가 다만 천리 남짓하다고 말한 것은 역시 군중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기 때문이다.¹¹⁶⁾(30~31쪽)

③ 만일 뱃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서풍이 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한바탕 울고 불고하게 될 것이니, 먼저 일을 꾸며 피어두는 것만 같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깜짝 놀라며 깨닫는 것처럼 하고는 무리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만일 유구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 돌아올 도리가 없는데 이를 어찌나”하고 말했더니 모두들 낙담하고는 놀라 묻기를,

“무슨 말씀입니까?”

한다.¹¹⁷⁾(41쪽)

①에서 장한철은 배 밑바닥으로 밀려드는 물을 뱃사람들이 퍼내게 만들기 위해 내일 아침이면 서해의 외연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뱃사람들은 금세 반응을 보인다. 살길이 있다는 말에 장한철을 종으로 섬기겠다며 서로 경쟁하듯 물을 퍼낸다. 하지만 장한철은 애초부터 외연도가 얼마나 가깝고 먼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살아볼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뱃사람들을 속

115) 吾嘗閱地圖,西海有外煙島,東距所安島,爲一千三百里云,此舟之遭東風,在所安之西,而直向西海,其疾如飛,以余所料,明朝必當到泊於外煙之島,此島乃耽羅朝元時,設水驛處也,吾輩必有可生之路,豈非天佑乎,且此船新造堅緻,必無患矣.

116) 余已默慮,外煙之今不可係群心,又料冬日之晴,必生西北風,故即言于衆曰,今日若吹西北風,則今夜必炊食於琉球之廚矣…野話曰,渡盡白海黑海赤海,始到琉球云,則其遠,不知,其幾千里,而余所以只稱千餘里者,亦欲慰衆心也.

117) 若使舟人,平明見覺,則必將惹起,一場哭泣,莫如先事而誘之也,於是,佯若驚悟,而謂衆人曰,吾行若入琉球,則必無生還之理,奈何奈何,衆人皆落膽,驚問曰,何謂也.

여 위로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한철은 밧줄도 삿대도 다 잃어버린 데다 기울어 엎어질 염려가 있는 배가 외연도에 도달하리라 믿는 밧사람들을 두고 어리석다고 여긴다.

인용문 ②에서 유구의 부엌에서 밥을 먹게 되리라는 '나'의 호언장담도 밧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연적 언술이었다. 유구 방향의 항해를 도와주는 서북풍이 강하게 불며 배의 나아감이 빨라지자 장한철은 책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유구 산수의 경승, 물산 이야깃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붙든다.

뒤이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유구에 닿지 못하게 되리라 여긴 장한철은 ③에서처럼 다시 피를 낸다. 민간에 전승되는 제주목사의 유구 세자 피살설을 꺼내놓는다. 제주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구에 도착하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조바심에 밧사람들은 얼굴빛이 변한다. 밧사람들은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었다는 사공의 말에 이윽고 안심한다. 이에 장한철은 짐짓 기뻐하는 말투를 쓰며 여인국이나 일기도에 닿게 될 것이라는 말을 꺼내서 또 한번 위기를 모면한다.

간간이 권위 있는 옛날 전거를 들며 밧사람들을 안심시키던 장한철도 일행들의 목숨을 곧 앗아갈 순간엔 점괘에 의존하는 외연적 언술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속아 살 길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관음보살을 외우며 신의 도움을 비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한철이다. 이후 선판이 부서지고 배에 물이 차오른 광경을 지켜보던 장한철은 점사에 나와 있다며 해시에 살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발화한다.

이 같은 외연적 언술에 밧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뻐하며 명령대로 따른다. 이미 28명의 목숨을 책임질 '선장'의 지위에 오른 장한철의 언술은 밧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 밧사람들이 '나'의 외연적 언술에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것은 '나'의 말이 된다.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지 모르는 바다 위에서 밧사람들이 '나'의 말에 따라 물을 퍼내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써 '나'는 외연적 언술이 지닌 잠재력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외연적 언술의 부피가 커질수록 책임에 따른 '나'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장한철 『표해록』의 언술은 결국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두 가지 목소리가 대립하고 대화한다. 지은이 자신은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 즉, 이중적 목소리를 동시에 발화하지만 장한철을 제외한 일행들에게는 외연적 언술만 들린다. 내포적 언술은 배가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 기약이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연적 언술은 외연도에, 또는 유구에, 아니면 해시에 아무 일 없이 폭풍이 없는 육지에 도착하리라는 기대감으로 배의 항로를 미리 전망하고 있다.

내포적 언술이 작가의 의도가 분명한 언술이라면, 외연적 언술은 권위를 잃은 오류의 언술이다. 그럼에도 작중인물을 지배하는 것은 외연적 언술이다. 밧사람

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이 흘러 다니지만 외연적 언술에 즉각 반응한다. 두 가지 유형의 언술은 서로 싸운다. 지은이 자신도 이들의 대립이 어떻게 결론 날지 알지 못한다. 내포적 언술이 의도한 대로 생존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외연적 언술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해록』에 ‘나’의 외연적 언술이 없다면 이야기는 새롭게 달라졌을 것이다. 배의 난파 상황을 사실 그대로 알릴 경우 뱃사람들의 동요가 어떠했을지는 짐작이 간다. 자신의 두려움을 숨긴 채 행해진 외연적 언술은 일견 앞뒤가 맞지 않는 담론을 만들어내지만 훗날의 상황과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촘촘한 내용으로 짜여졌다.

가령, 장한철은 당초 뱃사람들을 안심시키려 짐작 삼아 유구의 부엌에서 밥을 먹게 될 거라 말했는데, 결국 첫 표착지는 유구의 호산도였다. 호산도에서 장한철 일행은 전복과 굴 따위를 배불리 먹었다. 또한 유구로 향하는 바람의 방향이 바뀐 뒤에는 일기도나 여인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훗날 마지막 표착지 청산도에서 평생 잊지 못할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청산도가 곧 여인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나’의 외연적 언술은 내포적 언술이 의도한 것처럼 목숨을 건지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언술을 뛰어넘어 표해록의 문학적 긴장감, 긴밀도를 높여주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표해록』의 언술 유형 중에는 ‘나’의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이 한 몸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물에 빠져죽은 21명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 ‘나’를 비롯한 8명이 청산도에서 지낸 제사에서 읽은 제문이 한 예다. 그동안 ‘나’의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이 팽팽히 긴장감을 유지한 채 감춤과 드러냄을 이어왔다면 이야기 속에 불쑥 끼어든 제문은 둘의 균형을 깨뜨린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나’는 격한 울분을 쏟아내며 고향을 떠나보낸다.

오호. 슬프구나. 다 같이 죽을 고비를 넘나들 때에 그 정이 두텁지 않았음이 없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사생(死生)을 달리하였으니, 이는 어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리오. 부디 슬퍼하지 말라. 집에서 늙은 부모들이 문에 기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근심함은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요, 어복(漁腹)에 몸을 장사지냄은 옛날에도 역시 있었던 일이니 부디 슬퍼하지 말라. 남편을 잃어 슬피 우는 아내의 마음은 우리가 응당 위로해 줄 것이며, 아버지를 잃어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응당 우리가 보살펴 줄 것이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배를 보호하고, 번거로운 원망일랑 하지 말아다오.

오호. 슬프도다. 야만인이 사는 바다 외로운 섬에서 나를 부축하고 내린 사람은 네가 아니더냐. 굴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으라고 준 사람은 네가 아니더냐. 조개를 갈라서 구슬을 나에게 바친 사람은 네가 아니더냐. 어찌 오늘 이와 같이 너희는 죽고 내가 살고, 너희는 귀신이 되고 나는 산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였으리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눈물이 쏟아질 듯이 흐르는구나.¹¹⁸⁾(103~

118) 嗚呼哀哉, 同出沒於鬼關, 非其情之不厚, 異死生於今日, 是豈人之所能哉, 爾莫悲乎, 烏髮倚閭, 天實爲之, 爾莫悲乎, 魚腹葬身, 古亦有之, 妻哭崩城, 我當慰之, 兒啼覆霜, 我當恤之, 爾其護我歸帆, 無敢煩冤, 嗚呼哀哉, 蠻海孤嶼, 扶余而下者, 非爾耶, 將橘而饋余者, 非爾耶, 剖蚌而獻珠者, 非爾耶, 豈料今日, 爾死而我生, 爾鬼而我人耶, 興惟及此, 有淚如瀉。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적 문학 속에는 이질적인 문학 장르들(전설, 민담, 성인전, 탐정담, 유령이나 악마의 대화, 가족 연대기, 그리고 잡지류의 폭로 기사 등)을 끼워넣는데, 이는 인물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다른 틀에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119) 『표해록』에는 이 같은 이질적 장르들이 곳곳에 출몰한다.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유래를 설명하며 언급한 삼성신화, 서해를 건너 걸어와서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선마고(洗摩姑) 전설, 고힌들을 위무하는 제문, 표류를 예견하는 내용을 담은 듯한 한시 등이 그런 예다. 이들은 장한철의 심리 변화 시기와 맞물려 표류인을 달래는 위안의 도구로, 나약한 인간을 증거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중 제문은 독백체 형식으로 서술됐다. ‘나’는 표류의 여정 동안 인연을 맺어 온 사람들을 떠올리며 회한을 읊었다. 제문에는 표류에서 겪은 일이 다 녹아 있다. 풍파를 넘나들며 다져진 결속력, 제주바다의 험한 조건, 뱃사람들의 애환이 몇 줄의 제문으로 인상적 시공성을 그려낸다.

그동안 배가 떠밀리고 해적을 만나는 동안에도 목숨을 부지했던 장한철 일행은 청산도 앞바다에서 반수가 넘는 희생자를 낸다. 『표해록』의 제문은 한편으로 표류의 여정이 갈무리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기호’처럼 읽힌다. ‘나’는 제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마다 목이 메고 눈물이 흐른다. 말이 통하는 청산도에 표착한 일행들은 더 이상의 희생이 없을 거라 믿으며 제를 지냈을 것이다.

제문을 읽는 행위가 외연적 언술이라면 혼백들에게 고이 잠들라 하며 향화를 피운 것은 내포적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나’가 일행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어온 외연적 언술이 마침내 내포적 언술과 한 몸을 이룬 채 대화를 시도했다.

3. 주체의 행동 방법

현재란 어떤 점, 더구나 흘러가는 어떤 점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긴장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 시간을 관찰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과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이용하여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 위치하게 한다. 이러한 정신적 체험의 시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재고 있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이미 없고, 지금 지나가고 있으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쫓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현재의 의식 상태에서 단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다림을 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미래는 기다림으로 현재는 주의력으로 과거

119) 게리 솔 모슨·캐럴 에머슨, 앞의 책, 447쪽.

는 기억으로 정의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이나 기다림이 없다면 시간 체험도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긴장은 지속이 되고 그것을 통해 있을 것(미래)은 없어질 것(과거)으로 나아간다. 즉 미래는 현재를 거쳐 과거로 흘러든다고 말할 수 있다.¹²⁰⁾

이 같은 시간을 체득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다. 조광제는 “시간이란 몸 자신이 이미 상황에 처해 있는 데서, 즉 세계에의-존재라는 데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¹²¹⁾고 했다. 나를 가능케 하는 이 세계를 전반적으로 포섭해서 등 뒤에서부터 나를 휘감으며 나를 향해 압도해 들어와 내 속을 가득 채우는 듯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속에서부터 다시 빠져나가 나와 상대하고 있는 세계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라지는 듯한 회전·역회전 운동을 이미 끊임없이 연출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다.

시간에 던져진 몸의 존재가 나타나는 양상을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중심적 행동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중심적 행동은 작품속 인물들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가’에 차이가 드러난다.

『표해록』에서는 시간과 공간,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이 공존하듯 행동의 대상과 방법도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 중심적 행동이 나란히 서 있다. 현실중심적 행동이 위기를 타개하는 현실적 방법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과거중심적 행동은 꿈이나 기묘한 자연현상 같은 신비적 요소에 쏠린 것을 말한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인 이들의 운명을 그려내는 『표해록』은 두 가지 행동이 저마다 모습을 드러내며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더해 주고 있다.

1) ‘나’의 현실중심적 행동

『표해록』에 등장하는 직업군은 크게 장한철과 친구 김서일로 대표되는 선비, 사공, 노잡이, 상인으로 나뉜다. 그 중 제주 상인과 육지 상인을 합친 인원이 가장 많다. 바닷길을 잘 아는 이는 뱃사람들이지만 『표해록』에서는 그들의 판단이 힘을 잃는다. 장한철이 출항 직후 사공에게 던진 말은 앞으로 장한철이 제주 바다를 건너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지 짐작하게 만든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잔잔해도 바다를 건너가기란 몹시 위험한 일이 아니겠소. 하물며 오늘은 날도 이미 저물도 또 바다도 가이없이 멀고 넓은데, 어찌하여 추자도에 배를 대어 잠시 쉬었다가 순풍을 기다려 북류으로 뱃머리를 돌릴 생각은 하지 않소.”¹²²⁾(22쪽)

120) 정재석, 「현대소설의 시간구조 연구-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1, 26쪽.

121) 조광제, 앞의 책, 433쪽.

122) 時當風高,涉海極危,況今日已晚,而涯岸茫然,何不泊舟于楸子島,歇站候風,轉向北陸耶.

제주 포구를 떠난 이후 장한철 일행의 항해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추자도에 배를 대어 잠시 바람을 피하고 출발했다면 장한철 일행의 미래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더욱이 첫 조난 장소인 노어도 앞에 도착해 사공이 닻을 내리려 할 때 세 가닥 갈고리 닻을 준비해 오지 않은 바람에 결국 배를 댈 겨를도 없이 동풍에 밀려 순식간에 다시 표류하게 된다.

장한철은 이처럼 초반부터 더 이상 뱃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자 현실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랜 경험을 가진 뱃사람들이 바다에서의 금기를 자주 언급하며 좌충우돌하거나 속절없이 서로 붙들고 울기만 장면과 대조적이다.

① 나는 뱃사람들을 돌아보고

“숨소리를 죽여서 그 고래가 배 있는 줄을 모르게 하는 것이 옳지, 관음보살이란 염불 소리는 무엇 때문에 내는고. 고래가 도를 닦는 중도 아닌데, 어찌 관음보살을 존중할 줄 알까보냐. 설사 관음보살의 혼령이 남아있다면 치더라도 어찌 능히 그 고래를 막아내고 이 배를 옹호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도대체 관음보살에게 무얼 축원했다는 거냐”

하고 꾸짖는다.¹²³⁾(24~25쪽)

② 오후가 되니 한라산도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다시 보이지 않는다. 바람은 점점 사나워지고, 파도도 다시 날뛰기 시작한다. 바다와 하늘이 서로 맞닿은 듯 망망하여 가이없다. 오늘 아침 화정(火丁)에게 명령하여 죽을 쑤어 뱃사람들에게 먹이려 했다. 내가 근심하기는 여러 사람들의 폐와 위장이 바짝 말라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윤택하게 하여 병나지 않게 하려했던 것이다. 뱃사람들은 모두,

“배에서 죽을 쑤는 것은 그것을 꺼리는 풍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밥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로써 갈 길의 좋고 곳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밥짓기를 권한다. 그래서 밥을 짓기로 했다. 밥은(잘 지어졌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며 물에 말아 먹었다.¹²⁴⁾(36~37쪽)

①에서 고래¹²⁵⁾가 나타나자 뱃사람들은 낮빛이 변한 채 뱃바닥에 꿰어 엮드리고는 관음보살만 부지런히 외운다. 큰 놈은 배를 삼키고 작다해도 배를 뒤엎을 것으로 여긴 뱃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한다. 장한철은 이런 뱃사람들에게 호통친다. 숨소리를 죽여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게 만드는 일이 고래로부터 희생을 막는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123) 余責舟人曰,屏息聲氣,使彼物不知有舟船,則可也,而觀音之聲,何爲而發也,彼物非修道之僧,豈知尊觀音之佛,觀音之殘魂餘靈,亦豈能羈羈彼物,擁護此船耶,你於觀音,抑何所祝.

124) 午後漢拏山滅沒,而不得見,風力轉猛,波濤復起,水天相接,茫無際涯矣,今朝欲令火丁作粥,以饋舟人者,慮其諸人脾胃之乾燥,而欲潤之不使生病也,舟人皆曰,船中作粥,非徒有俗忌,且以炊飯之善否,可占船行之吉凶矣,仍炊飯,飯果善,做衆皆喜之,和水而啜之.

125) 장한철 『표해록』보다 300년 전쯤 앞서 1487년 9월부터 1488년 6월까지의 기록을 담은 최부의 『표해록』에도 고래가 등장해 큰 것은 배를 삼켜 버리고 작은 것은 배를 뒤집어 버린다고 걱정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표해록에는 몇몇 유사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최부, 김지홍 옮김, 『표해록』, 지식음만드는지식클래식, 2009, 63쪽.

②에서처럼 배에서는 죽을 쑤는 게 금기다. 지어진 밥의 양호 정도에 따라 그 날의 길흉이 정해진다고 믿어서다. 배에 동승한 사람들의 폐와 위장이 바짝 말라 죽을 쑤어서 먹이려 하는 장한철과 대조를 보인다.

장한철의 현실중심적 행동은 호산도에서 구조선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섬 봉우리에 깃발을 세우고 불을 피우자는 제안으로 이어지고, 왜적의 습격을 받아 봉우리 위의 깃대를 없애자는 일부의 주장에 왕래하는 배가 모두 수적일 수 있겠느냐면서 차분한 논리로 반대 의견을 낸다. 그러면서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급히 떠나기보다 천천히 섬에 머물자며 항해에 필요한 노와 상앗대를 준비해 두라고 지시한다.

안남 상선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에서도 장한철의 현실중심적 행동은 도드라진다. 안남에 사는 명나라 사람과 필담을 나누며 사해의 형제임을 강조하고, 일행들에게 안남 상선에 오르면 예를 갖추라고 권한다. 모두 4층으로 되어 있는 상선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대목에서도 배의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며 자료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청산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세금으로 고통 받는 섬사람들의 처지에 눈길을 돌린다. 청산도 주민들이 가혹한 세를 거두는 심부름꾼(궁차)을 대감이라 일컬으며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것은 그간의 궁차의 행패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변해(邊海)를 맡아 다스리는 관원들은 마땅히 여러 섬들을 고루 보살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어두며 “불쌍한 사람들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¹²⁶⁾(112쪽)하고 탄식하기도 한다.

『표해록』 말미, 장한철이 제주로 함께 건너가자는 일행들의 권유를 뿌리친 이유가 실상은 안전한 바닷길이 열리는 계절인 사오월을 기다린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바다를 떠도는 녀이 될 뻔한 표류의 경험은 장한철을 결국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게 만들었다.

2) ‘나’의 과거중심적 행동

장한철 『표해록』에는 변화무쌍한 자연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한편에 설화적이고 신비적 요소를 담은 과거중심적 행동이 적지않게 묘사되어 있다.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이고 보면, 현실의 시간을 뒤집어놓는 꿈이나 환상, 이상 날씨 같은 현상은 앞날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항해 첫날 장한철 일행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큰 고래다. 그것이 몸을 한 번 뒤척이면 물결이 치솟고 내뿜는 물은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앞서 비바람이 몰아

126)而可哀者,非島人耶.

칠 정조가 나타났고 신기루가 떴다. 사공은 배에 탄 사람들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일러준다.

호산도에서 해적을 만나기 전에는 한 때의 검은 구름이 천둥과 번개를 끼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목격된다. 고래, 자라, 거북 등은 물결 사이로 뛰어오르며 달려가 부딪힌다. 사람들은 용이 하늘에 오르는 것이고, 풍우의 천둥은 모두 그 신의 변화라며 땅에 엎드려 목숨을 살려주기를 축원한다.

안남 상선에 오른 뒤 청산도 표착을 앞둔 시기에는 장한철의 꿈 장면이 등장한다. 고향에 가 있는 꿈이었다.

감나무 잎사귀는 파릇파릇하게 막 돌아나고 버드나무 그늘이 한참 무르익었는데, 집의 아이가 손으로 앵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무릎 위에 끌어 안았다. 그러다가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면서 깨어 보니 보이는 것은 영성한 등불이 가물거리고 있을 뿐 몸은 배 창문가에 나동그라져 있다.¹²⁷⁾(69~70쪽)

꿈은 실재와 다른 공간이지만 현실에서처럼 앵두나무에 앵두가 열리고 ‘나’의 무릎 위에 아이를 끌어안을 수 있다. 이는 ‘나’의 실존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과거중심적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꿈의 영역으로 실존을 확장해 그곳의 현실과 부딪힌다. 친구 김서일은 푸른 버들, 붉은 앵두는 사오월에나 볼 수 있는 것이니 장한철이 고향에 돌아갈 시기는 여름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고향을 그리는 장한철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진다. 이는 장한철이 무사히 고향에 이를 것임을 일러주는 꿈이기도 하다.

“슬프다. 부모님이 저 산봉우리에 올라가 보셨겠지. 처자들이 저 산에 올라가 기다렸지.”

혹은 일어나 한라산을 보고 절하며 축원한다.

“백록선자(白鹿仙子)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선마선과(洗摩仙婆)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대저 탐라 사람에게서 세간에서 전하기를 선옹(仙翁)이 흰 사슴을 타고 한라산 위에서 놀았다 하고, 또한 아득한 옛날에 선마고(洗摩姑)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서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선마선과와 백록선자에게 살려달라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 나 역시 한라산을 바라보게 되니, 슬픔과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차서 어쩔줄을 모르겠다.¹²⁸⁾ (79쪽)

안남 상선에서 동북쪽에 제주의 한라산을 목격하자 일행들은 슬픔과 기쁨이 엇갈려 어쩔 줄을 모른다. 전설 속 흰 사슴을 탄 신선과 거녀 설문대할망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일행들은 그렇게 전설 속 인물들을 거명하며 처해진 상황에서 탈출하려 애쓴다.

127) 見柿葉初長,柳陰正濃,而家兒手弄櫻桃,抱着在膝上矣,仍欠伸而覺,但見踈燈自照,身在篷窗邊耳.

128) 哀我父母,陟彼岵矣,哀我妻子,陟彼岡矣,或起拜,向漢拏而祝曰,白鹿仙子,活我活我,洗麻仙婆,活我活我,蓋耽羅之人謠傳,仙翁騎白鹿,遊于漢拏之上,又傳邃古之初,有洗麻姑,步涉西海而來,遊漢拏云,古今者所以祈活於洗麻白鹿者,無所控訴而然也,余亦悲喜叢中,無以爲喻.

청산도 앞바다에 난파 직전 장한철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장면도 몽환적이다. 표류해서 죽은 제주사람 김만석 김진룡이 눈앞에 나타나고, 별별 괴상한 도깨비 형상들이 눈에 어른거린다. 비몽사몽간에는 한 미녀가 소복을 입고 장한철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 장한철에게 탕건을 주라고 했던 만석, 집개를 배행하겠다는 진룡, 먹을 것을 갖다준 소복 입은 미녀의 등장은 앞날을 예고하는 장치다. 훗날 장한철이 과거 급제해 높은 관리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소복 입은 미녀는 청산도에서 만나게 되는 운명의 여인을 말한다. 눈앞에 어른거렸던 도깨비불은 청산도 해안에 표착한 표류인들을 구하기 위해 섬 주민들이 손에 들었던 횃불과 겹쳐진다.

그 여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줌에 미쳐서, 돌연 깨닫는 바가 있었다. 바로 얼마 전, 바다에서 풍파를 만나 까무러쳐 정신을 잃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던 바로 그 여인이다. 아아, 그 여인은 청산에 있고 나는 제주도에 살면서 떠나면 바다로 가로막혀 평생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지난날에는 꿈속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는 사당 아래에서 마주 대하게 되었으니 전생에 연분이 없었다면 어찌 이럴 수 있으리오. 술을 다 마시고 속사로 돌아와서도 연연한 생각으로 마음을 수습할 수 없다.¹²⁹⁾(107~108쪽)

청산도 조씨 여인의 등장은 『표해록』의 극적 흥미를 높여준다. 저자는 꿈 속에서 보았을 만큼 오래되고 질긴 인연임을 강조하며 여인과의 만남을 필연적인 것으로 귀결시킨다.

모든 만남에 있어 시간적 지표(‘같은 그 시간에’)와 공간적 지표(‘같은 그 장소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¹³⁰⁾ 이별이 생기는 것은 그들이 주어진 장소에 같은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와 여인의 만남은 섬과 바다로 이어지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표류의 여정에서 일탈의 순간이다. ‘나’는 전생에 연분이 없었다면 어찌 꿈 속 여인을 청산도에서 만날까 싶어 생각이 복잡해진다. 여인과의 만남을 운명적으로 것으로 이끌기 위해 ‘나’는 자꾸만 꿈 속으로 치닫는다.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지만 ‘나’는 다시 혼인할 수 없는 몸임을 분명히 한다. 과거에 합격해 남쪽 지방에서 관리를 시작한다면 약속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말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덧붙인다. 여인은 5년간 ‘나’를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인연이다. ‘나’는 오직 꿈이라는 매개를 이용해 만남을 이끌어냈다.

과거중심적 행동은 장한철이 작년 조천관에서 순풍을 기다리며 꿈에 등영구(登瀛丘)를 올랐던 기억을 묘사한 대목에서 또 한번 나타난다.

129) 及夫進食于余也, 恍然記得, 乃頃者風波昏夢中, 進食之娥也, 噫彼在青山, 我居瀛州, 隔千里之滄波, 無一面於平生, 然而昔者進食於夢中, 今焉拭目於廟下, 非有夙世緣業者, 能如是乎, 罷酒歸來, 默然消魂.

130)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앞의 책, 276쪽.

내가 꿈에 여기에 올라가서 이곳 경치를 즐기고 있다가 문득 절벽 위를 보니, 바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山中無曆日(산에선 날짜짜음이야 될 대로 되라지)

동구를 지나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자 또 한곳에는

馬上逢寒食(말을 타고 길을 가며 한식을 맞이하다)

란 글이 있었다. 어느 누가 내가 가없는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다, 호산도 섬 속에서 해를 보내고, 서울에 몇십일을 머물러 있다가 한식날에 길을 떠나게 됨을 미리 헤아려 알고 있었던고.¹³¹⁾(127쪽)

우연히 마주친 이름 모를 사람의 글귀를 떠올리며 표류의 경험을 풀어놓던 이 시기는 살아돌아온 7명중 4명이 이미 죽어 동곽 밖에다 장사를 지낸 뒤였다. 2명은 병이 들었고, 1명은 멀리 한라산의 남쪽에 가 있다. 장한철은 친구 김서일로 추정되는 묘 앞에서 곡을 하면서 그동안 섬과 섬을 떠돌았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심경을 밝힌다. 바다 위에 떠있는 것에 비하면 지상에서 춥고 배고픈 일은 오히려 배부르고 따뜻하다는 것이다.

꿈이나 비범한 날씨 등으로 앞날을 꿰맞추는 이 같은 과거중심적 행동은 현실의 비참함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꿈이 해석하는 대로 다가오는 여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남은 기간 주인공 앞의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과거중심적 행동과 현실중심적 행동은 양가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과거중심적 행동의 이면에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중심적 행동이 자리한다. 그가 끝내 귀환하게 되는 운명이었을지라도 인생의 위기와 분기점을 맞게 되는 ‘문턱’을 넘어서야만 한다.

현재에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로 넘어가는 분기점, 이를 바호친은 ‘문턱의 크로노토프’라고 불렀다.¹³²⁾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중심적 행동이 나란히 기능하는 『표해록』은 시공성으로 해석되는 크로노토프의 다양성과 맞물린다. 표해록에서는 바다라는 초자연적 환경을 헤쳐가는 일이 곧 문턱을 넘은 일일 것이다.

바다에 배를 띄우고 길을 나선 이상 문턱을 서성일 수 없다. 서성임은 곧 표류를 뜻한다. 일탈과 불안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문턱을 넘어 육지에 다다라야 한다. 그것이 바다를 열린 세계로 만드는 일이다. 죽음의 시간을 건너온 장한철은 바다 위에 있는 고통에 비하면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차라리 강녕(康寧)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바다라는 문턱을 넘은 자들은 인간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

131) 余夢登此者,以余樂在此而見,絕壁之上,有刻書曰,山中無曆日,由洞口而深入,又有書曰,馬上逢寒食,云矣,誰料余行,萬里漂海,經歲於虎山之中,數旬留京,啓程於寒食之日乎.

132) 정수채, 「김승옥 소설의 인물 연구-크로노토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43~44쪽.

IV. 『표해록』의 문학적 가치

장한철 『표해록』은 떠남에서 되돌아옴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1770년 12월 25일 제주를 출발해 1771년 5월 8일 제주로 돌아오기까지 장한철의 행적을 중심으로 여정이 순차적으로 그려져 있다.

장한철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남긴 ‘표해록’은 해양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으로 꼽힌다. 윤치부는 해양문학 작품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표해류 작품들¹³³⁾이라고 했다. 표해류 작품은 바다에서 뜻밖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면서 체험했던 사실과 표류 지역의 형승·산천·기후·언어·의복·토산·풍속 등의 견문을 일기체·문답체·노정기체·풍토기체·설화체 등으로 기록한 기사류 작품은 물론 문헌설화류·창작류나 가사류 양식의 해양문학 작품을 총칭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해양문학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소설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전문학 작품 가운데 표해류는 해양문학으로서의 가치가 규명¹³⁴⁾되어 왔다.

옥태권은 해양소설의 범주를 설명하면서 “해양소설에서의 체험이란 곧 ‘바다’와 ‘배’라는 ‘해양 공간’에서 ‘항해’라는 행위를 바탕으로 한 ‘바다에서의 삶’을 의미한다”¹³⁵⁾고 했다. 그는 바다를 근대적으로 인식한 이후에야 근대적 양식으로서의 해양소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같이 범주를 국한했다. 그는 한국문학에서 바다가 근대의 표상으로 나타난 시기를 1930년대로 보았다. 이 땅에 자본주의적 근대가 뿌리내린 시기로 경성이 근대 도시의 면모를 보이게 되고, 인천과 부산 등이 근대적인 항구도시의 면모를 보이게 된 것은 1930년대¹³⁶⁾이기 때문이다.

장한철 『표해록』은 이같은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고전적 해양문학의 특징으로 꼽히는 바다와 모험, 고난을 헤쳐가는 인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일찍이 국내 해양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혀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표해록』을 발굴해 소개한 정병욱은 이 작품을 두고 우리 문학사에서 찾기 드문 해양문학의 백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운 청산도』란 이름으로 심성재 필사본을 번역한 현해당은 장한철의 『표해록』을 조선 성종 때 최부의 『금남선생표해록』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문학을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했다. 장시광은 그보다 더 나아가 장한철의 『표해록』이 분량이나 정보의 양, 그리고 서술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최부의 『금남

133) 윤치부, 앞의 글, 10쪽.

134) 옥태권, 앞의 책, 15쪽.

135) 옥태권, 앞의 책, 34쪽.

136) 옥태권, 앞의 책, 41~42쪽. 옥태권은 김기림의 어떤 시들에 나타난 항구도시의 풍경 등을 그 예로 들며 김기림은 누구보다도 해양문학과 근대성의 관계를 빨리 인식한 시인이라고 했다.

표해록』에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를 종합해볼 때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등 서양의 해양문학에 낯익은 독자들에게 장한철 『표해록』은 국내 해양문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작품이다. 일본 유구열도에서 전남 청산도까지 너른 바다를 배경으로 극한 고통, 두려움, 사랑, 이별, 죽음 등 인간의 희로애락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 순항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과 감정들이다.

『표해록』은 작품 곳곳에 극적인 장치를 배치해 놓았다. 표류 직후 제주 부근 노어도에서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사공이 세 가닥 갈고리 닻을 준비해오지 않아 속절없이 표류하게 된 일이 한 사례다. 첫 표착지 무인도 호산도에서 낙원같은 일상을 보내는가 싶더니 해적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빼앗긴 일도 나온다. 또한 극적으로 안남상선에 구조돼 순항하는가 싶더니 제주목사의 안남제자 피살설 영향으로 바다로 다시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결국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마지막 표착지 청산도에 다다른다. 이 곳에서 장한철은 어느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장한철은 4개월여 만에 제주로 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한 배에 탔다 구사일생한 동료와 친구의 때 이른 부음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독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사건들이 전개된다.

이처럼 장한철 일행이 고비를 넘기고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번 빛나간다.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은 수십 명의 목숨을 바다에 내놓고서야 운곽을 드러낸다. 장한철은 어느 표류기처럼 표착지의 낯선 풍속을 그려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담 좋은 이야기꾼처럼 바다에서 경험한 수상한 날씨, 배에 함께 오른 군상들의 행동, 꿈과 설화, 독서 편력 등을 곁들여 예측불허인 바다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독자들은 작가의 생존 여부를 이미 알고 있지만, 『표해록』을 읽는 동안에는 그의 안부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18세기에 쓰인 장한철 『표해록』은 실화에 바탕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꿈 속에서 만났던 여인을 표착지에서 재회해 사랑을 나누는 등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소설적 기법이 더해져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거기다 살아남은 자의 깨달음을 덧붙여 독자들에게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장한철 『표해록』은 『청구야담(靑邱野談)』의 ‘부남성 장생 표대양(赴南省張生漂大洋)’, 『동야휘집(東野彙輯)』의 ‘표만리 십인 전환(漂萬里十人全還)’처럼 후대의 야담집에 반복적으로 실려있다. 이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당대에 인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민중들에 의해 면면히 전승되었음을 의미¹³⁷⁾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표해록』은 기행문학적 성격, 기록문학적 성격, 일기문학적

137) 장한철, 김지홍 옮김, 앞의 책, 195쪽.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표해록』이 안고 있는 문학적 가치를 다각도로 살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낯선 세계에 대한 충실한 묘사, 표류 경험에 대한 생생한 보고, 개인적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등 『표해록』은 일반적인 해양문학적 성격을 뛰어넘어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의 개별적 가치에 주목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다성성의 눈을 통해 『표해록』을 들여다보는 일도 필요하다. 이 작품은 바다위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헤쳐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1인칭 서술이지만 『표해록』 속 ‘나’의 목소리는 겹겹이 쌓여 있다. 몰아치는 비바람 앞에서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나’는 거짓으로 행선지를 꾸며내며 일행들을 안심시킨다.

생존을 향한 몸의 활동은 시공간이 중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꿈속으로 실존의 영역을 확장해 고향으로 귀환할 시기를 가늠하고, 표류로 목숨을 잃은 제주 사람들을 혼곤한 시공간에 등장시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나’가 삶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 등 『표해록』을 지탱하는 이야기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는다. 장한철 일행이 그토록 가닿고 싶어 하는 섬(육지)은 본래 ‘나’가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탈출하려 했던 공간이자 목숨을 위해 배를 대야만 하는 공간이다. 내포적 언술과 한 몸인 외연적 언술은 살아남기 위한 임기응변식 언술을 넘어 『표해록』에 복선을 제시하며 이야기의 그물망을 탄탄히 만들어 놓는다. 과거중심적 행동과 현실중심적 행동 역시 작중인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바다라는 문턱을 넘기 위한 분기점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V. 결론

장한철 『표해록』은 1770년 제주사람 장한철의 표류 경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작품이다. 순차적 여정을 따라 기술해 놓았지만 시간과 공간, 주체와 언술, 사고의 대상과 행동에서 이중적 목소리를 드러낸다. 인생의 위기나 전환점에 직면해있는 표해록의 작중인물들은 ‘그들에게 바다(세계)는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있다.

『표해록』에는 다양한 문학적 성격이 드러난다. 바다에서 생활하며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해양문학적 성격을 보인다. 새로운 세계의 문물을 접한 경험을 담아놓은 기행문학적 작품이면서 항해 이후 무사귀환까지의 여정을 일기를 써나가듯 기록해놓은 일기문학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더불어 표류를 경험하고 그에 얽힌 기이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기록문학적 성격을 지녔다.

또한 독립적이며 융합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와 의식을 다성성의 특징으로 볼 때, 장한철 『표해록』에서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란히 들려온다. 1인칭 시점으로 쓰인 작품이지만 작가는 겹겹의 목소리를 지녔다.

본고에서는 특히 다성성의 측면에서 『표해록』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시간·공간의 구조, 주인공 ‘나’의 내포적 언술과 외연적 언술, 과거중심적 행동과 현실중심적 행동이 작품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며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해록』 속 시간과 공간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1770년 12월 25일 제주를 출발해 1771년 5월 8일 제주로 돌아오기까지 유구 호산도, 전남 완도 청산도를 거치게 되는 여정에는 시공간의 중첩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장한철 일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신만고 끝에 다다른 각기 다른 섬은 이중적 속성을 띤다. 표류로 인한 불행한 결말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재현 반복되는 섬은 벗어나야만 하는 공간이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배를 대야만 하는 공간이다. 육지의 문물을 보기 위해 제주를 떠났던 장한철이지만 바다 밖에서 험난한 행로를 겪으며 제주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이다.

바닷길을 헤매는 뱃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언술 역시 다성성이 드러난다.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작품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대립하고 대화한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는 언술이 내포적 언술이라면, 과장되고 이치에 맞지 않은 언술은 외연적 언술에 해당된다.

『표해록』에 ‘나’의 외연적 언술이 없다면 이야기는 새롭게 달라졌을 것이다. 배의 난파 상황을 사실 그대로 알릴 경우 뱃사람들의 동요가 어떠했을지는 짐작이

간다. ‘나’의 외연적 언술은 내포적 언술이 의도한 것처럼 목숨을 건지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언술을 뛰어넘어 『표해록』의 문학적 긴장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중심적 행동과 과거중심적 행동도 『표해록』에 나란히 서 있다. 『표해록』에는 꿈이나 비범한 날씨가 자주 등장한다. 앞날을 미리 꿰맞추는 과거중심적 행동은 현실의 고단함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해몽대로 다가오는 여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남은 기간 주인공 앞에 놓일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중심적 행동과 현실중심적 행동은 양가적 측면이 있다. 과거중심적 행동의 이면에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현실중심적 행동이 자리한다.

장한철 『표해록』에는 주변부와 중심부가 공존한다. 애초 노잡이와 사공, 상인, 선비가 한 배에 탄 『표해록』의 배경은 그 둘이 끊임없이 만나고 대립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양측은 표류에 대처하는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은이는 뱃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닮았고, 뱃사람들은 뱃일의 전문성을 거론하며 장한철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설화와 민담, 꿈, 민간신앙이 작품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며 선비 장한철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배에 동승한 민중들의 의식 세계가 폭넓게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주변과 중심의 목소리는 때로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는 장한철 『표해록』을 한층 입체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성적 문학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표해록』을 살폈다. 장한철 『표해록』은 그동안 해양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면서도 그것이 지닌 개별적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여겨진다. 『표해록』이 품은 다성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이번 연구는 부족하나마 작품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노력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국립제주박물관 필사본을 우리말로 옮긴 정병욱 번역의 『표해록』을 기본 자료로 사용했다. 앞으로 국립제주박물관 필사본, 국립중앙박물관 필사본에 대한 비교 검토 등이 뒤따른다면 『표해록』에 대한 한층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국립제주박물관 필사본에 있는 ‘두주’에 대한 깊이 읽기도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표해록』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려는 연구는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장한철. 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2006.
장한철 외. 김봉옥 · 김지홍 옮김,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
도지회, 2001.
장한철. 김지홍 옮김, 『표해록』, 지식을만드는지식클래식, 2009.

2. 논문

-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정아. 「이청준의 「이어도」에 나타난 ‘일탈’의 크로노토프」, 충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김현주. 「관소리의 다성성, 그 문체적 성격과 예술·사회사적 배경」, 『관소리연구
』13집, 관소리학회, 2002.
박동욱. 「崔斗燦의 乘槎錄에 나타난 한중 지식인의 상호 인식」, 「표류와 동아시아
의 문화교류」, 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09.
서인석. 「장한철의 『표해록』과 수필의 서사적 성격」,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
구회, 1989.
오관석. 「한문기행연구-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
문, 1984.
유경수. 「한승원 소설의 크로노토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유기룡. 「기록문학의 작품적 한계설정-년픽션문학연구 1」, 『어문학』통권 29호, 한
국어문학회, 1973.
윤일수. 「「만강홍」에 나타난 장한철 표류담의 계승과 변이 II」, 『어문학』58호, 한
국어문학회, 1996.
윤치부. 「한국해양문학 연구-표해류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92.
정미진.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연구-다성성을 중심으로」, 경상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정수채. 「김승옥 소설의 인물 연구-크로노토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2004.
정재석. 「현대소설의 시간구조 연구-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
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01.
최성환.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호병탁. 「한국현대소설의 ‘대화적 상상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3. 국내 단행본

캐리 솔 모슨 · 캐릴 에머슨. 오문석 · 차승기 · 이진형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구모룡. 『해양문학이란 무엇인가』, 전망, 2004.

국립제주박물관,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출판사, 2003.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4.

김윤식 ·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2.

마이어호프, 한스. 이종철 옮김, 『문학 속의 시간』, 문예출판사, 2003.

바흐친, 미하일. 전승희 · 서경희 · 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98.

여홍상 엮음.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옥태권. 『해양소설의 이해』, 전망, 2006.

이득재. 『바흐친 읽기』, 문화과학사, 2003.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장한철. 현해당 옮김, 『그리운 청산도』, 학술학술정보, 2006.

정운경. 정민 옮김, 『탐라문건록, 바다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도, 2009.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9.

최부. 김지홍 옮김, 『표해록』, 지식을만드는지식클래식, 2009.

한창훈. 한주연 그림,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 한겨레아이들, 2008.

해양수산부. 「표해록과 해양사」, 『한국의 해양문화』5, 해양수산부, 2002.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4. 국외 단행본

張漢喆. 宋昌彬 譯, 『漂海錄』, 新幹社, 1990.

Abstract

Polyphony of Jang Han-cheol's "*Pyohaerok*"

Pyohaerok recorded experiences of drifting in the sea that Jang Han-cheol had from Jeju Island in 1771. He, along with 28 other people, left Jeju Island to take the state examination, but happened to stay at sea for 12 days facing high seas. Eventually, they ended up drifting to the Ryukyu Islands (Japan) and Cheongsando Island (Jeollanam-do, Korea). They safely returned to Jeju Island. The manuscript, currently stored in the Jeju National Museum, was designated as a Jeju Cultural Property in 2008 because of its historic value. Introduced to scholars in the 1960s, it was translated by Jeong Byeong-wook and published by Bumwoosa, a publishing company, in 1979.

The manuscript reveals diverse literary values. As sea literature, it records those who survived at sea. It is also travel literature offering encounters with civilizations unknown prior to that time; it is diary literature recording everything during the voyage. Lastly, it is documentary literature that records unique experiences at sea.

As such, this article examines the literary values of *Pyohaerok*, particularly in terms of polyphony. Drifting into uncertain time and space, the drift experience is characteristic of indeterminacy, non-termination, and uncertainty. It emphasizes creation and process rather than existence and outcome, revealing traits of polyphony. This article examines structures of time and space in *Phohaerok*, intension and extension of its main character ('I'), and simultaneous appearances of behaviors centered on both the past and the present.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specific time and space within *Pyohaerok*. The manuscript offers overlapping time and space in the voyage, which departed from Jeju Island on December 25, 1770 and returned on May 8, 1771 via Hosando Island and Cheongsando Island. It describes tensions and hope

through which the past and the present intersect. The structure of spatial juxtaposition, lining island to island, reveals dire situations of people drifting at sea.

The discourse of 'T' also reveals polyphony that offers hope to people drifting at sea. Desperate to survive at sea, multiple voices in the manuscript sometimes collide against or converse with one another. The discourse of hope, here, is an example of intention while that of exaggeration and irrationality are examples of extension.

Behaviors centered on both the past and present appear in the manuscript. Behind past-centered behaviors are present-centered behaviors to overcome the existing crisis. *Pyohaerok* was newly published recently, attracting renewed scholarly attention. Diverse interpretations, examinations, and comparisons of manuscripts stored in the Jeju National Museum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ill offer richer and deeper understandings of *Pyohaerok*. Future research will certainly help us explore new interpretations of *Pyohaerok*.